

# 고전시가에 나타난 술의 문학적 의미 고찰

황병익\*

## <차 례>

1. 들머리
2. 고전시가에 나타난 전통주(傳統酒)의 양상과 실체
3. 고전시가에 나타난 술의 의미
4. 마무리

## <국문초록>

본고는 고전시가 작품에 등장하는 술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살피고, 주제적인 접근까지 시도했다. 음주의 목적과 상황에 따라 술의 종류는 어떻게 다르고, 그 술의 효능과 의미를 어떻게 인식했으며, 작품 내에서 술은 어떤 내포적 의미를 가지는지를 살펴보았다.

“겨울 10월 기해일에 성례(成禮)·낙빈(樂賓)·연령(延齡)·영액(靈液)·옥장(玉漿)·희빈(喜賓) 등 주점 6개소를 설치하였다.”라고 한 『고려사』 성종(成宗) 조의 기록이 술이 가지는 의미를 잘 대변하고 있는데, 고전시가에 등장하는 술의 효용과 의미를 살펴본 결과 신인(神人) 감통(感通) 그리고 인간의 기원, 취흥(醉興)과 어울림, 인생무상과 해우(解憂)와 자기 위안, 벽사(辟邪)와 치병(治病)과 축수(祝壽), 초월의 상상과 신선(神仙) 세계의 구현 등으로 나눌 수 있었다.

신에게 맑을 술을 바치며 구성원의 화합과 단합을 꾀하는 음주, 근심을 내일로 미루고 지금 이 순간의 안일과 즐거움을 만끽하려는 음주, 인생의 무상함에 젖어 자기를 위안하는 음주, 액을 물리치거나 병을 고치려 하고 장수를

\* 경성대학교

기원하는 음주, 신선 세계의 초월과 여유를 모방하려는 음주 등, 그 목적에 따라 선택하는 술의 종류와 제조법이 달랐다.

본고는 전통주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작품에 국한하여 의미를 살폈지만, 한시나 다른 고전까지 연구 대상을 확대한다면 더 많은 술, 더 많은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우리나라의 음주풍속은 단순히 소재·제재의 측면을 넘어 작품의 주제나 화자의 내면과 연관 지어 고찰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어 : 신인 감통, 취흥, 인생무상, 벽사, 치병, 축수, 초월의 상상, 신선 세계

## 1. 들머리

『동의보감』에는 술을 “성질이 대열(大熱)하고 맛이 쓰고 달며 독이 있으니 약세(藥勢)를 행하고 악독(惡毒)한 기운을 줄이며 혈맥을 통하게 하고 위장을 두텁게 하며 피부를 윤택하게 하고 걱정을 없애며 노(怒)를 발하고 언어를 선양하며 뜻을 창달한다. 그러나 오래 마시면 신(神)을 상하고 수(壽)를 던다.”라고 설명한다.

술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인식은 항상 공존한다. “머물러 있을 때는 술잔을 잡고 움직일 때는 술통을 들어, 오직 술에만 힘쓰니 어찌 그 밖의 것을 알겠는가. 선생은 이때에 바로 술 단지를 들고 술통을 받들고는 술잔을 입에 대고 탁주를 마신 뒤에 수염을 털고 두 다리를 뻗어 누룩을 베개로 삼아 술지개미를 깔고 누웠는데, 생각도 없고, 걱정도 없으며, 오직 즐거울 뿐이었다. 멍청히 취해 있는가 하면, 어슴푸레 깨어있기도 하는데, 조용히 들어도 우레 소리가 들리지 않고, 자세히 보아도 태산의 형상이 보이지 않는다.”(劉伶, <酒德頌>)는 술을 마시는 즐거움을 적었고, “너에게 술 즐기지 말라 경계하노니,/미치는 약이요 아름다운 맛 아니라,/삼가

고 중후한 성품을 변화시켜/흥하고 험악한 사람 되게 하나니,/옛날이나 지금이나 경패(傾敗)한 사람을/역력히 모두 다 기록할 수 있느니라.”<sup>1)</sup> 술의 폐해<sup>2)</sup>를 적었다.

서호수(徐浩修)도 『해동농서(海東農書)』에 “술을 조금만 마시면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지나치게 마시면 사람을 해친다. 기분을 즐겁게 하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옳다. 적게 마셨을 때는 체증의 기미까지 끌어내는 약효를 발휘하고, 피부를 윤택하게 하며, 얼굴빛이 환하고 혈색이 좋게 하고, 더러운 것을 막아준다. 과다하게 마시면 간과 담의 기능이 어그러지고 모든 맥에 무리가 생기며 그로 말미암아 콩팥을 망치고, 근육·뼈·위가 망가져 오래 지속되면 음식을 먹지 못한다. 홀로 술을 마시면 의당 죽을 날이 멀지 않다.”<sup>3)</sup>고 했다. 대개 사람이 술을 만들 때는 재앙을 불러들이려는 의도가 없었을 테지만, 세상에는 술의 유폐(流弊)로 인한 소송(訴訟)이 많았기에 선조들은 향음주례(鄉飲酒禮)를 만들어 “술을 마실 때는 즐겁게 하되 방탕한 지경에 이르지 말고 엄숙하되 소원한 경지에 이르지 말 것”이라 훈도하며 술이 지나쳐 생기는 폐단을 경계하려 했다.

술은 인간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문학 작품에도 술, 술 마시는 장면, 술자리의 이야기가 의외로 많다. 한국시나 중국 시에서 술은 우정의 상징이면서 불안·공포·변화·무상관을 푸는 주요 상징이 되고 있다.<sup>4)</sup> 본고는 술이 등장하는 작품에 대한 범박한 이해를 넘어, ‘술’이 가

1) “戒爾勿嗜酒 狂藥非佳味 能移謹厚性 化作凶頑類 古今傾敗者 歷歷皆可記”(范魯公, 戒子詩; 張鎡 撰, 行己, 『仕學規範』 卷12).

2) “술의 해독은 크니, 어찌 특히 곡식을 씹히고 재물을 허비하는 일뿐이겠는가. 술은 안으로 마음과 의지를 손상시키고 겉으로는 威儀를 잃게 한다. 혹은 술 때문에 부모의 봉양을 버리고, 혹은 남녀의 분별을 문란하게 하니, 해독이 크면 나라를 잃고 집을 폐망하게 만들며, 해독이 적으면 性稟을 파괴시키고 생명을 잃게 한다. 그것이 綱常을 더럽혀 문란하게 만들고 풍속을 퇴폐하게 하는 것은 이루 다 열거할 수 없다.”(『세종실록』 권62, 세종 15년(1433) 10월 28일 정축 2번째 기사).

3) “酒飲少則益人 過多則損人 氣暢而止可也 飲少則能引滯氣 導藥力 潤肥膚 悅顏色 通榮 辟穢惡 過多則肝浮膽橫 諸脉衝激 由之敗腎毀筋腐骨消胃 久之不能飲食 獨與酒宜去死無日矣”(徐浩修, 節飲食, 『海東農書』 卷4; 韓國學文獻研究所 編, 『農書』 9, 亞細亞文化社, 1981, 255쪽).

지는 의미를 주제적 접근을 통해 짚고자 한다. 이에 본고는 먼저 고전시가 작품에 드러나는 음주의 양상을 살피고, Ⅱ·Ⅲ장에 걸쳐 먼저 실체 파악이 필요한 술을 살핀 후, 음주의 목적과 상황에 따라 술의 종류는 어떻게 다르고, 그 술의 효능과 의미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그 음주 양상이 시가 작품 내에서 어떤 내포적 의미를 가지는지를 고찰해 나갈 것이다.

## 2. 고전시가에 나타난 전통주(傳統酒)의 양상과 실체

고전시가 중에는 신도주(新稻酒)·삼해주(三亥酒)·강술 등 많은 전통주가 등장한다. 그러나 본장에서는 “가다니비브른도괴설진강수를비조라”(〈청산별곡〉 8연)의 ‘강술’, “藥이라먹논黃花고지안해드니~”(〈동동〉 9월령)의 ‘황화주’처럼 시가 작품에서 앞뒤 문맥이 모호하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전통주를 우선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박인로 <누항사> “간이근 삼해주을 취(醉)토록 권(勸)허거든~”에 삼해주가 등장한다. 이 술 이름은 돼지날(=上·中·下亥日)에 찹쌀·멥쌀가루와 누룩으로 반죽하기 때문에 붙여졌다.

- (1) “정월 첫 돛날 빅미 두 말 빅세 작말 탕슈 서 말 디링 누룩 닷 흙 셋거  
 녀코 돌갯 돛날 빅미 서 말 빅세 작말 탕슈 너 말 닷 되 반죽 디링허여  
 녀고 셋재 돛날 빅미 닷 말 빅세 작말 탕슈 닳굽 말 닷 되 디링허여 비  
 져 닳거든 쓰라”<sup>5)</sup>(『주방문』 2a~2b)

『주방문(酒方文)』에는 삼해주의 적절한 반죽 양과 익힘과 식힘, 숙성의 시기 등을 제시했다.<sup>6)</sup> 삼해주는 일명 춘주(春酒)·백일주(百日酒)로 알려

4) 李在銑, 『韓國文學 主題論』, 西江大學校出版部, 1989, 215쪽.

5) 백두현, 『주방문 정일당잡지 주해』, 글누림, 2013, 22~23쪽.

6) “三亥酒法 正月上亥日 粘米一升 百洗作末 煮稀粥待冷 麴末眞末各一升 調和入瓮 次亥日 粘米白米各一斗 百洗作末 作孔餅煮出停冷 和前釀納瓮 三亥日 白米五斗 百洗

졌으며, 조선조에는 장안의 우량주로 이름이 높았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돼지를 ‘복을 가져다주는 동물’<sup>7)</sup>로 숭상하였다. 삼해주는 해일(亥日)에 술을 안쳐 12일 간격으로 덧술을 치는 제법과 한 달 간격(36일)의 첫 해일에 덧술을 치는 제법 등 2가지가 있다. 세 번 덧술을 쳐서 걸러낸 청주와 술을 걸러내기 전 덧술을 가지고 증류시킨 소주 등 2종이 있다. 삼해주는 어느 민속주와는 달리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로 10~15℃의 낮은 실내온도에서 발효·숙성시키고, 빚는 법이 비교적 까다로워서<sup>8)</sup> 매우 귀한 약주로 꼽힌다.

다음은 강술이다. <청산별곡> 8연 “가다니비브른도기설진강수를비조라 ~”의 ‘설진 강술’을 그동안 “‘설진’은 ‘술진’의 속음, ‘술지’는 비(肥)의 원의로, 농도가 강하다는 뜻이다. ‘강’은 ‘강(強)+ 술(酒)’이다. 강술은 문헌에 소견이 없으나 강주(強酒), 곧 농도가 강한 술의 뜻이다.”<sup>9)</sup> “(술)을 형용한 설진은 주정(酒精)의 강도를 말한다.”<sup>10)</sup> 견해가 주를 이루었다.

- (2) 강술은 차조를 갈아 구멍떡을 만들고 보리누룩을 섞어 빚는데, 오메기 술과 빚는 법이 비슷하지만 물을 거의 넣지 않는다. 술이 다 되면 ‘가루 죽’처럼 된다. 이 술은 제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넓은 양하 잎으로 싸도 흐르지 않아 휴대하기 간편하고 물에 희석해 마실 수 있어 먼 길을 갈 때 가지고 다녔다. 말을 기르는 말테우리도 강술을 가지고 다녔다.<sup>11)</sup>

蒸熟停冷 熱水三鎗盆 調冷同入 過三月用 俗方”(洪萬選, 『山林經濟』 卷2, 治膳, 釀酒).

- 7) “대궐 안에서는 해일(亥日)과 자일(子日)이 되면 각색 비단으로 차는 주머니를 만드는데, 각색 실로 만든 끈을 꿰고 술을 길게 아래로 내려뜨린 것이 마치 큰 나비 같다. … 어떤 이는 말하기를 해(亥)와 자(子)는 12지의 끝과 처음이므로 이날 주머니를 만드는 것은 그 한 해 동안의 복록(福祿)을 그 주머니에 담는 뜻이라 한다.”(“禁中 以亥子二日 裁各色綾緞 造佩囊穿結襍組下作流蘇栩栩如大蝴蝶 … 或曰亥子居十二辰終始 是日造囊者 囊括一歲福祿之意也”, 『洌陽歲時記』 正月, 元日).
- 8) 朴綠潭, 태릉 삼해주, 『韓國의 傳統 民俗酒』, 曉日文化社, 1995, 66~68쪽.
- 9) 梁柱東, 『麗謠箋注』, 乙酉文化社, 1947, 328~329쪽.
- 10) 朴炳采, 『高麗歌謠의 語釋研究』, 宣明文化社, 1973, 235쪽.
- 11) 허시명, 『허시명의 주당 천리』, 예담, 2007, 112쪽; 안동군 와룡면 조천동 김준식

- (3) 강술은 쌀누룩을 쓴다는 점, 술이 액체가 아니라 반쯤 굳은 고체 상태라는 것이 특징적이다. 누룩을 비롯한 모든 원료가 쌀이었기 때문에 넉넉한 집안에서 사돈집에 인사 음식으로 쓰일 만큼 귀했다. 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영양식으로 먹기도 했고, 냉수나 얼음을 풀면 더울 때 갈증을 해소하고 허기를 달래주는 청량음료로 즐길 수도 있다 했다.<sup>12)</sup>

그러나 위의 자료를 보면, 강술은 “1) 차조를 갈아 만든 구멍떡에 보리 또는 쌀누룩을 섞어 빻고, 2) 발효시켜 반고체 상태의 가루 죽을 만들었다가 휴대하여 물에 섞어 마시는 술”임을 알 수 있다. “건더기를 조금 넣고 뽀뽀하게 끓인 된장”을 ‘강된장’이라 하고, 물에 개지 않은 된 풀을 ‘강풀’이라 하며, 누룽지를 ‘강밥’(강원 통천 김화)<sup>13)</sup>이라 한다. 그러므로 ‘강술’은 “물기가 적은, 섞지 않고 오직 그것만으로 된”이란 뜻의 접두사 ‘강’과 ‘술’의 결합으로, 물기를 없애거나 적게 하여 가루·반죽 상태로 보관하다가 물에 타서 마시는, 휴대가 간편한 가루 술이다.<sup>14)</sup> 강술은 오메 기술·이화주(진사가루술, 안동지방 성행) 등과 비슷한 제조법을 가졌다.

- (4) 니화주법 : 복성곳 필 새에 쌀 티워 작말호야 누룩호여 소삽에 썬워 듯다가 녀름의 빅미 빅세 세말호야 구무썬호여 닉게 쌀마 쳐 식거든 쌀호 말에 누룩 서되 호 두 되식 녀호되 그장 서너 불이나 노외여사 보드라오니라 서 되곳 녀호면 오래 이셔도 외지 아니호고 두 되 들면 오래 못 두느니라. 촌 무거리조차 녀 치느니라”<sup>15)</sup>

- (5) 배꽃이 성하게 피었을 때 담그는 술인데 빛이 희고 죽 같다. 이화주의 누룩은 백미 3말을 씻어 하룻밤 재웠다가 다시 씻어 고운 가루를 만들어 주먹만크씩 뭉쳐서 짚으로 싸 가마니에 담아 더운 구들에 두고 자주 뒤슬러서 누렇게 뜨면 된다. 누룩은 껍질을 벗기고 고운 가루로 만든다.

씨 데에서는 아직도 만들어 마신다고 전한다.

12) 박록담, 『名家銘酒』, 효일문화사, 1999, 553~556쪽.

13) 崔鶴根, 『증보 한국방언사전』, 명문당, 1990, 692쪽, 723쪽.

14) 황병익, 「〈청산별곡〉 8연의 의미 재론」, 『民族文化論叢』 45,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2010, 41~44쪽.

15) 안동 장씨 저, 『음식디미방』, 김달용 편, 경북대학교 출판부, 2003, 187쪽.

백미 한 말을 가루 내어 구무떡을 만들어 삶아 더운물로 잘 풀어서 차게 식힌 후, 위의 누룩가루 3되를 골고루 섞어 독에 빚어 넣으면 3~4일 후에 쓸 수 있다. 이 떡은 빚깔이 희고 죽 같으니 물을 타서 먹는다.<sup>16)</sup>

(4), (5)의 이화주(梨花酒)는 배꽃이 성하게 필 때 빚는다 하여 생긴 이름이다. 제조법이 강술과 흡사하다. 즉 이화주도 강술과 마찬가지로, 일반 청주나 막걸리와 같은 액화성(液化性) 주류와 달리 연유(煉乳)나 연질의 야쿠르트와 같은 연주(煉酒), 즉 술죽으로서 마실 량의 배 정도 되는 냉수나 얼음물을 첨가하여 희석시켜 마시는 술이다. <한림별곡> 4연 “죽엽주(竹葉酒) 이화주 오가피주(五加皮酒) 앵무잔(鸚鵡盞) 호박배(琥珀盃)에 가득 브어”에 ‘이화주’가 등장한다. 이화주는 보관과 휴대가 편해 나무하러 갈 때나 한양에 과거보러 갈 때 가져갔다고 한다. 이 술을 마시고 나면 뱃속이 든든하고 도수가 4~5%밖에 되지 않아 취하지도 않고, 1년이 넘도록 두고 먹을 수 있으며, 한여름에도 그 맛이 변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sup>17)</sup>

그동안 ‘설진’을 “진한 술(濃酒)”을 꾸미는 수식으로 여겼으나, “오사(五沙)는 사토(沙土)로, 가늘게 부수어진 중등(中等)의 토양인데, 이 높은 좁쌀(粟) 알갱이(屑塵)를 곱게 빻은 것과 같은 입자<sup>18)</sup> 지녔다.”, “매화꽃가루처럼 흩날리며 버들 꽃 떨어지고, 운고(瓊膏)처럼 동그스름한 옥가루(玉塵)가 가득하네.”<sup>19)</sup>나 “누가 내게 밀을 주기에/옥가루처럼 가늘게 빻았네(玉屑塵細)/휘날리는 눈꽃도 같고/하늘이 처음 내리신 그 물(水)과도 같고.”<sup>20)</sup>에서 ‘옥진(玉塵), 설진(屑塵)’은 꽃가루나 밀가루처럼 가늘고

16) 鄭明鎬, 「韓國傳統 梨花酒 釀造技術에 대한 考察」, 『文化史學』 21, 韓國文化史學會, 2004, 1028쪽.

17) 朴綠潭, 『韓國의 傳統 民俗酒』, 曉日文化社, 1995, 209쪽.

18) “漂土之次曰 五沙 五沙之狀 粟焉如屑塵厲 尹知章注 言其地粟碎 故若屑塵之厲 厲 踊起也”(房玄齡, 『管子』 卷19, 地員 第58).

19) “碎如梅藥楊花落 團似瓊膏玉塵盈”(元天錫, 賦雪齋, 『耘谷行錄』 卷5; 『韓國文集叢刊』(이하 『文叢』, 6, 205쪽).

20) “貽我来思 玉屑塵細 六出飛花 天一生水”(貽來 來小麥也, 『說郛』 卷106 上).

고운 가루를 뜻한다. 이에 <청산별곡> 8연의 ‘설진’을 “티끌, 가루, 잔 부스러기” 등을 말하는 한자말 ‘설진(屑塵)’으로 읽고자 한다.<sup>21)</sup>

다음은 창포주(菖蒲酒)이다. 이세보의 시조에 “오월 오일 오날인가 집집이 창포주라/경도요 슈성곡은 명나슈변 슬프도다”라는 구절이 있다.

(6) “훈훈한 바람 부드럽고 천기(天氣)도 청신(淸新)하여/천문만호 온갖 집엔 쭉사람[艾人] 걸렸네./고요히 창포의 술 한 잔을 대하니/저 난초 물가에서 홀로 깬 이를 비웃노라.”<sup>22)</sup>

(7) “객지라, 단오 가절(佳節) 세월은 물같이 흐르는데,/새벽부터 주황(朱黃) 사열 늦도록 쉬지 못해/고을이야 변지(邊地)건만 풍속만은 예스러워/창포주 한 잔은 시름을 달래주네.”<sup>23)</sup>

위 (6), (7)은 단오에 집집마다 쭉사람을 만들어 걸어두고, 창포주를 마시는 풍속을 담고 있다. 원천석의 “한 잔 술 창포 김치 안주에는 향기가 남았네.”<sup>24)</sup> 보면, 창포주를 마시는 전통은 고려와 조선을 거쳐 쪽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한 해의 때가 단오에 이르렀기에/잘게 썰어 넣은 창포주를 잔 가득 기울이네.”<sup>25)</sup> 하였다.

21) <정석가>에서 ‘첩리(帖裡/帖裏/貼裡), 천익(天翼)’을 ‘털릭’으로, <서경별곡>에서 ‘小城京(景)’을 ‘쇼성경’으로 표기한 예 등이 고려가요에서 한자어를 우리말로 표기한 예에 해당한다. 『악장가사』에서 西京(서경)·信(신)·우뫼龍(룡)까지도 한자와 한글을 같이 표기하고 있지만 ‘삿기광대(廣大)’·‘종종(終終/種種)’·‘소(沼)’ 등은 한글로 쓰고 있으니 한자와 한글의 병기 원칙을 모든 곳에서 엄격하게 준수한 것 같지는 않다.(황병익, 앞의 논문, 41~44쪽).

22) “熏風微軟氣淸新 萬戶千門掛艾人 靜對菖蒲一尊酒 笑他蘭渚獨醒臣”(元天錫, 端午, 『耘谷行錄』 卷2).

23) “客中佳節逝如流 晨閱黃朱晚未休 賴是邊州風俗舊 一杯菖酒可澆愁”(權近, 端午日隨州點馬, 『陽村集』 卷5, 點馬行錄).

24) “靜坐山齋日正長 一卮菖歎有餘香 郡人鼓樂聲來耳 祖聖遺風在我鄉”(元天錫, 端午贈水亭弟 五首, 『耘谷行錄』 卷4).

25) “一年時序又端陽 細切菖蒲酒蒲觴”(徐居正, 端午前一日, 『四佳詩集』 卷51; 『文叢』 11, 110쪽).

우리나라 사람들은 단오를 수릿날이라고 했는데, 이날 밥을 여울물에 던져 굴원을 제사하였다는 유래가 전한다.

- (8) 지역의 거리가 만여 리나 떨어져 있고 세월이 천여 년이 지났어도 풍속이 고쳐지지 않고 신명(神明)이 여전하니 어찌 사람으로 하여금 감모하게 함이 여기까지 이르는가? ... 남녀로서 머리를 땀은 처녀 총각들은 창포를 뜯어다가 물에 끓여 머리를 감고, 그 뿌리의 흰 부분을 너덧 치를 깨끗이 닦아 그 끝에다 붉은 칠을 해서 머리에 꽂거나 허리에 차기도 한다. 생각건대 <대대례(大戴禮)>에 “축란(蓄蘭), 즉 창포로 목욕한다.” 하였고, 송나라 왕기공(王沂公)의 단오첩(端午帖)에 “도리어 창포를 자르는 것은 사귀(邪鬼)를 물리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로 볼 때 그 유래가 대체로 먼 것이다.<sup>26)</sup>

처녀 총각들이 창포물에 머리를 감는 것이나 창포 뿌리를 잘라 붉은 칠을 해서 머리에 꽂거나 허리에 찬 일은 다 사귀(邪鬼)를 물리치고자 한 것이고, 창포를 뜯어다가 술 담그는 독에 함께 넣어 창포주를 빚은 것은 여기에 온기(瘟氣)를 떨어버리는 약효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창포주는 “풍비(風痺)를 다스리고 연수(年壽)를 늘린다.”(『동의보감』 湯液篇 卷1, 酒)고 했고, “삼십육 풍(風)과 열두 비(痺)를 다스리며 혈맥을 통하게 하고, 골다공증(骨萎)을 다스리며, 오래 복용하면 귀와 눈을 맑게 하므로,<sup>27)</sup> 석창포(石菖蒲)를 달여 즙을 내거나 혹은 술로 빚거나 물에 담가두었다가 마신다고 했다. “두견새 날아와 우는 오월 창포와 쑥을 머리에 장식하여 술이라도 마셔”(『만엽집』 4116)라고 한 것을 보면, 창포는 한중일 모두에서 액귀를 쫓아내는 영위(靈位)를 가진 식물로<sup>28)</sup> 여겼음을 알 수 있다.

26) “國人稱端午日水瀨日 謂投飯水瀨 享屈三閭也 地之相去萬有餘里 世之相後千有餘年 謠俗不改精爽如在 何令人感慕 至此也”...“男女卅角者 採菖蒲 煎湯洗沐 取根白四五寸 洗消令淨 朱塗其端 或插或佩 按大戴禮 五月五日蓄蘭爲沐浴 宋王沂公端午帖 旋刻菖蒲要辟邪 其所從來 盖遠矣”(『洌陽歲時記』 五月 端午).

27) “治三十六風 一十二痺 通血脉 治骨痿 久服 耳目聰明 石菖蒲煎汁 或釀 或浸 並如上法”(『本草綱目』 卷25, 穀之四).

28) 임성철, 『일본 고전시가문학에 나타난 자연』, 보고사, 2002, 451쪽.

다음은 황화주(黃花酒)다. <동동> 9월령에 ‘藥이라먹논黃花고지안해드니새셔가만ㅎ애라’라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서 “약이라 먹논 황화”라 함은 9월 9일의 황화주, 즉 국화주를 말한다.

- (9) 9월 9일은 중양가절(重陽佳節)이니 또한 중구일이라고도 한다. 한나라 여남(汝南) 환경(桓景)이 비장방(費長房)을 만나니 장방이 이르기를, 큰 재액이 있으니 9월 9일에 수유를 빨간 주머니에 넣어 팔에 매고 산에 올라 국화주를 마시면 그 액이 없어지리라 하거늘 그대로 하여 저녁에 돌아오니 소·양·닭·개들이 다 한꺼번에 죽어 그 액을 대신하였다.<sup>29)</sup>

진(晉) 맹가(孟嘉)가 9일에 용산(龍山)에 놀다가 바람에 갓이 날려지되, 가(嘉)는 깨닫지 못하였다. 그 시에 이르되, “붉은 수유를 채패(彩佩)에 달아 차고 누른 국화를 금잔에 띄우더라.”라고<sup>30)</sup> 했다.

『동국세시기』에도 위 환경(桓景)의 일화를 소개하고, 그 뒤 세상 사람들이 9월 9일만 되면 산에 올라 술을 마시고 여자들은 수유(茱萸)를 넣은 주머니를 찻다고<sup>31)</sup> 했으니 중구일에 먹는 국화주는 액을 막는 효과,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효과가 있다고 여겼음을 알 수 있다.

- (10) “9일에 높은 곳을 외로이 올라/용산의 승지(勝地)에다 호사스런 자리  
펼네./술 마시다 흠뻑 취해 부축 받아 집에 올 쟈,/머리 가득 황화(黃花)  
꽃고 달 보며 돌아오네.”<sup>32)</sup>

- (11) “도성에 병란(兵亂)이 일어나/삼대 베듯 사람을 죽이는구나./좋은 시절

29) “故事 續齊諧記. 汝南桓景 隨費長房 遊學數年 長房 忽謂之曰 九月九日 汝家有災厄 可速去 今家人 各作絳囊 盛茱萸 繫臂登高 飲菊花酒 禍乃可消 景如其言 舉家登山 夕還見牛羊鷄犬 皆暴死焉”(史鑄 撰, 種藝, 『百菊集譜』 卷3).

30) “紅萸懸彩佩 黃金泛金觴”(『閨閣叢書』 卷3, 山家樂, 附歲時記).

31) 李錫浩 譯, 『東國歲時記』(外), 乙酉文化社, 1969, 116쪽; “9월 9일에는 茱萸꽃을 달고서 蓬餌를 먹고, 菊花酒를 마시면 장수한다고 여겼다.”(九月九日 佩茱萸 食蓬餌 飲菊花酒 令人長壽, 『西京雜記』 卷3).

32) “九日登高不待媒 龍山勝處錦筵開 也應爛醉扶歸路 滿插黃花踏月來 自註張詩有九登高之”(權近, 次韻答張判官躋, 『陽村集』 卷3; 『文叢』 7, 32쪽).

차마 잊을 수 없어/막걸리에 국화 띄워 마시네.”<sup>33)</sup>

우리나라와 중국에서는 음력 9월 9일(重陽節, 重九日)이 되면 높은 곳에 올라 시와 국화주를 즐겼다.<sup>34)</sup> 아베노 히로니와(阿倍廣庭)가 신라사절을 초대한 늦가을 연회자리에서 “기러기 울며 나는 가을 달밤 술잔에 국화주 따르고 힘든 여행길 위로함애”<sup>35)</sup>라고 했고, 신라 때 이날에 안압지 임해전(臨海殿)이나 월상루(月上樓)에서 군신이 모여 시가를 즐겼다 하니 중앙절의 연원은 매우 오래다. 이날이 되면 으레 상락주(桑落酒, 重陽酒)를 걸러<sup>36)</sup> 국화의 은은한 향을 즐기며 고아한 흥취로 삼았다.<sup>37)</sup> 위의 (10)도 중앙절의 풍속을 잘 담았다. 이날의 광경은 다른 문인들의 글에도 나타난다.<sup>38)</sup> (11)은 정중부가 난을 일으킨 의종 무인년(1170), 상서(尙書) 김신윤(金莘尹)이 좋은 시절 중앙절 풍속에 따라 국화주를 마시는 모습을 그렸다. 국화주를 마시는 관습은 한중일 모두의 공통 풍습으로, 국화를 수객(壽客)·경신(輕身)·장생(長生)·연명(延命)·갱생(更生) 등의 뜻, 즉 연명의 주술적 부적이나 약이(藥餌)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sup>39)</sup>

33) “輦下風塵起 殺人如亂麻 良辰不可負 白酒泛黃花.”(李齊賢, 金尙書莘尹毅廟庚寅重九日有詩云, 『櫟翁稗說』 後集2; 민족문화추진회(편), 『국역 익재집』 2, 술, 1997, 149쪽 참조).

34) “宴時立帳高處 飲菊花酒 (中略) 解放前 東北漢族文人中比較重視重陽節 或野游或登高賦詩者 如吉林文風鼎盛 詩人會萃之地 常有菊花會 食菊花糕等重陽活動 民間對此節較爲淡泊.”(張志立·汪玢玲, 九九話重陽, 中國民俗大系研究叢書之一 『中國民俗文化大觀』(上), 吉林人民出版社, 1999, 90쪽).

35) 임성철, 앞의 책, 457쪽.

36) “終南青鶴洞 勝處是君家 預把重陽酒 相逢泛菊花.”(李荇, 寄淳夫 三首, 『容齋集』 卷4; 『文叢』 20, 408쪽).

37) “處處瓊枝帶露斜 異邦誰與賞年花 霜姿不著蠻兒眼 風節偏宜漢使槎 乘輿會傾三百罍 多情更聽一聲笳 故園無數黃金藥 白酒何人泛我花.”(金誠一, 同五山 次老杜秋興八首, 『鶴峯續集』 卷1; 『文叢』 48, 180쪽; “尊酒相逢醉幾場 菊花侵坐語生香 紛紛離合何煩說 一舉須傾累十觴.”(沈義, 約與敬之等訪子溫 次韻, 『大觀齋亂稿』 卷3; 『文叢』 19, 181쪽).

38) “與客携壺杜紫微 風流文彩照當時 誰知牧隱登高處 只有黃花一兩枝.”(李穡, 重九, 『牧隱藁』 卷6; 『文叢』 4, 21쪽), “按酒齋而斯香 滴糟床之濃濃 掇金英以泛泛 羌芳氣之揚揚 滋喉吻以滌胸襟兮 渾通身兮天香”(姜希孟, 友菊齋賦, 國역 『私淑齋集』 卷5,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9, 284~285쪽).

### 3. 고전시가에 나타난 술의 의미

#### 3.1. 신인(神人) 감통(感通), 인간의 기원

김기홍(金起泓, 1635~1701)의 <농부사(農夫詞)> “청주(淸酒)를 목과 밋고 자성(棗盛)을 그촌 후에/선조의 제사(祭祀)하며 부자(婦子)를 거느리고”나<sup>40)</sup> 김구(金絀)의 “술은 또한 예를 완성하는 도구이다. 신명을 받드는 데 쓰는 것이므로, 완전히 없앨 수 없다.”에<sup>41)</sup> 드러난 것처럼 술의 가장 큰 쓰임은 천지신명과 통하는 일이다. “제사에는 술이 있어야 한다.”는 문왕(文王)의 말을 들어, “하늘이 명을 내려 비로소 우리 백성에게 술을 만들게 한 것은 큰 제사를 위해서이다.”라고<sup>42)</sup> 할 정도로 제사와 술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제사에서 술은 무격·제관의 접신을 돕는 일종의 영매(靈媒)이다. 제사에서 강신(降神)과 헌시(獻尸) 때 사용하는 술은 신을 맞는 영신(迎神), 즐겁게 하는 오신(娛神), 환송하는 송신(送神)의 목적을 갖는다.<sup>43)</sup>

장 구경도 하려니와 흥정할 것 잊지 마소.  
북어(北魚) 캐 젓조기로 추석(秋夕) 명일(名日) 쇠어 보세.  
신도주(新稻酒) 올려 송편, 막나물, 토란국을  
선산(先山)에 제물(祭物)하고 이웃집 나눠 먹세.  
며느리 말미 받아 본집에 근친(覲親)갈 제,  
개 잡아 삶아 건져 떡고리와 술병이라.  
초록(草綠) 장옷 반물치마 장속(裝束)하고 다시 보니,  
여름 지어 거친 얼굴 소복(蘇復)이 되었느냐

39) 임성철, 앞의 책, 454쪽.

40) 임기중, 『한국가사문학주해연구』 5, 아세아문화사, 2005, 207쪽.

41) 金絀, 策, 酒禍. 『自菴集』 卷2; 『文叢』 24, 266쪽.

42) 『영조실록』 권103, 영조 40년 4월 23일 갑진 1번째 기사.

43) 高英姬, 「『시경』과 『서경』을 통해 본 음주문화」,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63,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회, 2015, 260쪽.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sup>44)</sup>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에는 신도주의 전통을 묘사하고 있다. 맨 먼저 수확한 햅쌀을 따로 저장해 두었다가 신도주를 빚는다. 『열양세시기』에는 “비록 벽촌의 가난한 집이라 할지라도 예에 따라 모두 쌀을 빚어 술을 만들고 닭을 잡아 찬을 만들며, 또 온갖 과일을 풍성히 차려놓는다. 그래서 말하기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 같기만 바란다고 했다.”<sup>45)</sup> 서민들은 햅쌀 동동주를, 부잣집·사대부가에서는 방문주(方文酒)를 정성껏 빚어, 풍요를 가져다 준 조상신·자연신께 감사의 제를 올리고, 친척·이웃과 술을 나누어 마셨다.<sup>46)</sup>

“술과 음식을 장만하여 그것으로 제사지내며 신주를 편히 하고 큰 복을 빌고”,<sup>47)</sup> 고대 서양 디오니소스 축제에서도 신들께 만찬과 기원을 드렸으니<sup>48)</sup> 동서양의 전통이 흡사하다. 신을 경배하는 의식에서 구성원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 연대감을 고취한다는 점에서 술은 신과 인간과의 융합을 넘어 인간과 인간을 융합시키는 접점<sup>49)</sup>이다. 이명주(耳明酒)·유롱주(牖壘酒)라 불리는 귀밝이술의 효용과 의미도 〈농가월령가〉의 신도주와 유사하다. 〈농가월령가〉에 “묵은 산채(山菜) 삶아내니 육미를 바꿀 쏘냐./귀 밝히는 약술이며 부럼 삭는 생률(生栗)이라/먼저 불러 더위팔기, 달맞이 햇불 켜기,/흘러오는 풍속이요 아이들 놀이로다.”에 등장하는 귀밝이술, 설날에 영춘(迎春)의 의미로 마시는 도소주(屠蘇酒) 등은 한 해 동안 액은 물러가고 복이 들어오라는 기원을 담은 세시풍속이다. “유롱주,

44) 李秉岐 외, 『農家月令歌·漢陽歌』, 民衆書館, 1974, 49쪽.

45) “中秋又稱佳節 故民間最重是日 雖窮鄉下戶 例皆釀稻爲酒 殺鷄爲饌 又有果之品 侈然滿盤 爲之語曰 加也勿減也勿 但願長似嘉排日”(『洌陽歲時記』八月 中秋).

46) 박록담, 『다시 찾은 전통 명주-우리 술 빚는 법』, 오상, 2002, 200쪽.

47) “以爲酒食 以饗以祀 以妥以侑 以介景福”(『詩經疏義會通』北山之什二之六, 鼓鍾四章).

48) J. Harrison, 오병남·김현희 역, 『고대 예술과 제의』, 예전사, 1996, 130~132쪽.

49) 오재환, 「신과 인간 융합의 접점」, 『술의 사회학-음주공동체의 일상문화』(한울아카데미, 1999), 96~97쪽.

즉 귀밝이술에 관하여 청주(淸酒) 한 잔을 데우지 않고 마시면 귀가 밝아진다고 하여 마신다.”, 정월 대보름에, 생밤을 깨무는데 이것을 ‘부럼(嚼腫/嚼癩)’이라고 하고, 청주를 마시는데 이것을 ‘귀밝이술[耳明酒]’이라고 했다.<sup>50)</sup> 날밤·호두·은행·잣 등을 깨물며 “1년 동안 무사태평하고 종기나 부스럼이 나지 않게 해주십사” 하니,<sup>51)</sup> 귀밝이술에는 한 해 동안 기쁜 소식만 많이 듣게 해달라는 기원이 담겨있다. 이에 근거하여, 개화기 계몽가사 <명릉주령(明叢酒令)> “음력(陰曆) 상원(上元) 명릉주나 한잔식을 먹여 보즈…다시 다시 연구(研究)하는 묘당대신(廟堂大臣) 모모(某某)의게 귀발기술 한 잔 주고…마이동풍(馬耳東風) 무이(無異)하야 거거익심(去去益甚) 인색(吝嗇)한 수전미로(守錢鄙虜) 모모의게 귀발기술 한 잔 주고”에서는<sup>52)</sup> 여론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고, 인색하게 자기 이익 챙기기에 급급한 친일파의 행위를 비판하면서 ‘귀가 밝아지기를 기원하고’ 있다.

우리 풍속에서 봉제사(奉祭祀)는 가장 중요한 술의 효용이다. 임금이 술에 대한 폐해와 훈계를 담은 글을 반포하면서도 “술을 마련하는 것은 술 마시는 것을 숭상하기 위함이 아니라 신명을 받들고, 술잔을 올리고 돌려주는 제사의 절차와 예”를<sup>53)</sup>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제사에서 신명에게 잔을 올리고 나서 조상신에게 헌작한다. 이때는 주로 맑은 술, 즉 청주를 쓴다. 물을 청척(淸滌)이라 한다. 주석에는 “옛날 제사에 물을 술 대신 썼는데 그것을 현주(玄酒)라 했다. 청척이라 한 것은 맑고 깨끗함을 말함이다.” 했고, 술은 청작(淸酌)이라 하고, 주석하기를, “작(酌)은 술을 따르다는 뜻이다. 술이 맑고 투명하면 잔에다 모자라거나 넘치지 않게 알

50) “嚼生栗謂嚼腫 飲淸酒 名耳明酒”(尹愷, 又記東俗 四十六韻, 『無名子集』 詩稿 제3책).

51) “嚼生栗胡桃銀杏皮栝子蔓菁根之屬 祝曰 一年十二朔 無事太平 不生癩癩 謂之嚼癩”(金星元, 『韓國의 歲時風俗』, 明文堂, 1994, 185쪽).

52) <대한매일신보> 1910년 2월 25일자; 임기중, 『한국가사문학주해연구』 7, 아세아문화사, 2005, 119쪽.

53) 『세종실록』 권62, 세종 15년(1433) 10월 28일 정축 2번째 기사.

맞게 따른다.”는 뜻이다.<sup>54)</sup> ‘청철(淸澈)’에는 “정신이나 기색이 맑고 또렷하다는 뜻”이 있으니 신에게 제사할 때 청주를 쓰는 것은 이와 같은 마음가짐을 뜻할 것이다. 제사 이후의 음복은 신인상향(神人相饗)이다. 제사 지내는 곳에서 신과 인간이 서로 함께 즐기고 먹고 마시게 되며, 음식을 골고루 나누어 먹는다.<sup>55)</sup> 인간은 늘 자기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알기에 신에 의존적인데, 술은 신에게 바치는 신성한 공물이며, 숭고하고 경건한 마음의 표현이다. 이 기원행위를 통해, 인간이 자력으로 이루지 못하는 일을 신이 도와줄 것이라 믿어 심리적 위안을 얻고, 신에게 바쳤던 술을 공동체 구성원들끼리 나누어 마시며 단합하는 마음을 일깨운다.

### 3.2. 취흥(醉興)과 어울림

“술의 쓰임도 역시 큼니다...친족을 화합하게 하는데도 필요하니 여러 가지 의례를 치를 수 있게 하고 군신 간의 연회를 열 수 있게 해주는데, 어찌 영원히 끊어버리겠으며 어찌 완전히 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sup>56)</sup> “내가 술을 즐기는 이유가 넷이 있으니, 불평이 하나요, 흥취가 들어요, 빈객을 접대하는 것이 셋이요...”<sup>57)</sup>에서 볼 수 있듯이, 술은 군신에서 친족·친구에 이르기까지 함께 어울리는 사람의 화합을 도모한다. 술의 효용 가운데 봉제사가 신성한 목적이라면 접빈객(接賓客)은 향연(饗宴)을 위함이다. 술자리에서 서로 진실을 드러내다보면 친밀한 사이는 더욱 친해지고 서먹한 관계라도 친밀해지니 그것이 바로 술의 사회성이다.<sup>58)</sup>

54) “水曰淸滌 疏 古祭用水當酒 謂之玄酒 云淸滌 言其淸潔也 酒曰淸酌 疏 酌斟酌也 言酒淸澈 可斟酌”(柳長源, 『常變通攷』 卷23 祭禮, 時祭 上, 具饌).

55) 李在銑, 앞의 책, 213쪽.

56) “而酒之用亦大矣...所以合族 可以治百禮 可以宴君臣 烏可永斷 烏可勿用”(金絳, 『自菴集』, 策; 『文叢』 24, 266쪽).

57) “某之嗜酒有四 不平一也 遇興二也 待客三也 難拒人勸四也”(鄭澈, 戒酒文, 『松江集』 原集 卷2; 『文叢』 46, 156쪽).

58) 李在銑, 앞의 책, 215쪽 참조.

- (1) 재너머 성권롱(成勸農) 집의 술 너댓말 어제 듯고  
 누은 쇼 발로 박차 언치 노하 지즐트고  
 아히야 네 권롱 겨시나 정좌수(鄭座首) 왔다 ㅎ여라  
 『역대시조전서』 #2532

친구 집에 술이 익었다는 말을 듣고 한걸음에 달려가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 술은 격의 없는 우정과 화합의 매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긍정된다. 술은 세속적인 고뇌와 제약에서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흥취의 세계로 통하는 윤희유 역할을 한다.<sup>59)</sup> “금준(金樽)에 술을 부어 옥수(玉手)로 상권(相勸)하니/술맛도 죠커니와 권혀는 임(任)이 더욱 좃타/아마도 미주미행(美酒美行)은 너뿐인가”(『시·대』 387)를 보면, 술을 통해 친분을 돈독히 하고, 그것을 매개로 끈끈한 인간관계와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어 감을 볼 수 있다.<sup>60)</sup>

- (2) “포릇포릇 파적이며 불긋불긋 솟적이며/이디빅이 연엽주와 도연명이  
 국화주와/기쵸흔 송엽주와 먹기 조흔 기명주면/펼펼썬는 붕어썸과 쓱쓱  
 우난 연기식금/빅설갓튼 낙지포면 실낱갓탄 잉어회를/만포키 먹은 후이  
 …”(〈화전가라〉)<sup>61)</sup>

술로써 끈끈한 유대를 즐기는 것은 비단 남성들만의 즐거움이 아니다. (2)는 부녀자들이 봄나들이를 즐기며 지은 가사이다. 파전이며 꽃지짐·붕어썸·잉어회 등을 안주로 삼아 연엽주·국화주·송엽주를 마신다 했다. 사대부가의 여성들은 삼종지도(三從之道), 봉제사, 접빈객 등 각종 의무를 받드는 가운데 이따금 부녀자들끼리 회포를 푸는 자리에서 〈화전가〉를 불렀다.

- (3) “무등산을 다 돌아보고,/오는 길에 식영정을 찾았노라./…/맑은 바람

59) 李在銑, 위의 책, 220쪽.

60) 한국고문서학회, 『의식주, 살아있는 조선의 풍경』, 역사비평사, 2006, 166~167쪽.

61) 임기중, 『한국가사문학주해연구』 20, 아세아문화사, 2005, 281쪽.

늪은 나무에 불고/밝은 해는 봄 정자에 걸리었네./좋은 술 삼해(三亥)를 기울이고/아름다운 나물로 오성을 대하누나.”<sup>62)</sup>

기대승이 식영정(息影亭)을 찾아 맑은 바람과 자연을 즐기며 삼해주를 마시는 장면이다. 또 위백규(魏伯珪, 1727~1798)의 “박사용(朴士用)과 이문찬(李文贊)이 이 말을 듣고 기꺼이 찾아왔으며, 좌우에 여러 벗과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또 열두 명이였다. 드디어 삼해주(三亥酒)를 사고 안주로 쓸 석수어(石首魚)를 구웠으며, 쌀밥과 청태(靑苔)를 싸들고 나란히 함께 산에 올랐다.”<sup>63)</sup> 삼해주가 등장한다.

(4) “쇼 업슨 궁가(窮家)애 혜염 만하 왓삼노라//공ㅎ니나 갑시나 주엄즉도  
ㅎ다마는//다만 어제밤의 거넨집 저 사람이//목 불근 수기치(雉)을 옥지  
읍(玉脂泣)게 꾸어너고//간이근 삼해주를 취(醉)토록 권(勸)ㅎ거든//이  
러흔 은혜(恩惠)을 어이 아니 갑흘넌고//내일(來日)로 주마 ㅎ고 큰 언  
약(言約) ㅎ야거든//실약(失約)이 미편(未便)ㅎ니 사설이 어려왜라”

위는 <누항사(陋巷詞)>의 한 대목이다. “양반이 직접 나서서 소를 빌리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물러나오는 광경은 작가의 상상적 이미지이거나 관념 유희가 아닌, 비참한 농가 생활 현실의 실체를 생생하게 느끼도록 한다. 수모를 받고 돌아와 각박한 세태인심을 피부로 느끼고 한탄하고 있다고”<sup>64)</sup> 의미부여 할 수 있겠다. “3월 17일, 우항(牛項)으로 가서 하자명(河子明)과 김성중(金成仲)을 방문하여 소를 좀 빌리려고 했으나, 빌릴 수 없었다.”한 일,<sup>65)</sup> “4월 15일, 마침내 조생중 벼를 파종하였다. 아! 양식

62) “歷盡山無等 來尋息影亭 清風吹老樹 白日麗春亭 美酒傾三亥 嘉蔬對五星”(奇大升, 次息影亭韻, 『고봉속집』 卷1, 五言四韻 2수).

63) “辛亥三月之暮 … 朴君土用 李君文贊樂聞而來之 則左右諸益同志者又十二人 遂沽三亥酒炙石首魚 裹以白飯靑苔 聯袂以登”(魏伯珪, 『存齋集』 卷21, 獅子山同遊記).

64) 金基卓, 「蘆溪歌辭의 現實認識-陋巷詞를 중심으로」, 『嶺南語文學』 7, 영남어문학회, 1980, 20~21쪽.

65) “十七日 丙申 余往牛項 訪河子明 金成仲 欲借牛而不得”(鄭慶雲, 『孤臺日錄』 卷3, 己亥(1599), 春3月).

떨어진 나그네가 먹는 것이 매우 급한데도 파종을 너무 늦게 했으니, 탄식할 일이다.”라는<sup>66)</sup> 기록을 보아도, 박인로가 전란 이후의 궁핍을 묘사하기 위해 가져온 사실적인 소재임에 틀림없다.

이렇듯 소를 빌리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삼해주를 매개로 한 소 주인과 건넛집 사람의 돈독한 어울림은 소를 빌려주겠다던 선약까지 깨뜨리는 반전을 불러왔다.

- (5) “쓸쓸한 집 적막하여 참새를 잡을 만한데,/어찌 군후의 방문 생각이나 했을까!/다시 한 병의 술 가져오니 정이 두터운데,/더구나 삼해주 맛 또한 뛰어났네.”<sup>67)</sup>

(5)는 이규보가 귀한 삼해주를 받고서 사례의 뜻으로 특별히 지은 시이니 삼해주는 늘 제법 귀한 술로 여겼다. 『추관지(秋官志)』에서도 삼해주를 사회적 문제로 언급했고,<sup>68)</sup> “의방(醫方)에서 춘주(春酒)·미주(美酒)라고 칭한 술도 삼해주”,<sup>69)</sup> 조선의 한 호장(豪將)이 “극락왕생보다도 삶은 돼지머리와 삼해주가 좋다”<sup>70)</sup> 한 것을 보면 삼해주의 진가를 알 수 있다.

앞장에서 삼해주는 까다로운 제조시기, 숙성의 조건으로 인해 귀한 술이었음을 살폈다. 여기다 삼해주의 안주로 내놓은 목 붉은 꿩고기는 또 어떤가. 『동의보감』에 꿩고기를 “치(雉)가 비록 식품 가운데 귀한 것이나...” 했으니,<sup>71)</sup> 꿩고기 안주 또한 귀하다. <누항사>에서 건넛집 사람이 소 입

66) “十五日 甲子 始落早稻 嗟乎絕糧之客 食之太急 而種之太晚 可歎(鄭慶雲, 위의 책, 夏4월).

67) “閑門寂寞雀堪羅 豈意君侯肯見過 更把一壺情已重 況名三亥味殊嘉”(李奎報, 『東國李相國後集』 卷6, 古律詩).

68) “命申禁酒令 時 都下米直踊貴 備堂金東弼言糜穀莫如酒 請嚴禁 上從之”(『영조실록』 권33, 영조 9년(1733) 1월 10일 임진 4번째 기사, “聞閭巷物情 則今當歲首賣酒之家例 釀三亥酒至於此時 多者或至一二百瓮 小者亦不下數十瓮”(奎章閣資料叢書 官署志 篇『秋官志』(下), 서울대학교奎章閣, 2004, 421쪽).

69) “春酒 醫方云美酒也 疑今三亥酒之類”(『芝峰類說』 下)

70) “豪將曰 其應云何 曰 往生西天 豪將曰 西天 有爛烹猪頭 澄清三亥酒乎 曰不知 豪將曰 如無之 雖西天 吾不欲往也 子勿語”(徐居正, 豪將, 『太平閑話滑稽傳』 卷1).

71) “雉雖食品之貴 然有小毒 不宜常食”(『東醫寶鑑』, 湯液篇 卷1, 禽部, 雉肉).

자에게 건넨 삼해주와 꿩 안주는 시적 화자의 처지를 더욱 비참하게 하는 소재로 쓰이고 있다. 지난날 건성으로 받아낸 약속이라 해도 소를 먼저 빌리기로 한 것은 화자인데, 소 주인은 건넛집 사람에게 삼해주와 꿩고기 안주를 대접받은 후에 “내일(來日)로 주마 헝고 큰 언약(言約)”을 했다며 선약을 깨뜨리고 태도를 바꿨다. 상식이 통한다면 건넛집 사람을 다음 순서로 잡아도 되고, 화자에게 미안해하며 다시 다음 순서를 약속할 수도 있지만 그 또한 하지 않았다. 삼해주와 꿩고기 안주를 매개한 취흥과 어울림이 판세 변화를 일으키고 양반의 체면까지 깎았다. 해마다 염치없는 부탁을 하는 처지이니 소 주인의 위약을 따지고 들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더 귀한 물건으로 소 주인과의 타협할 형편도 아니고, 그러기엔 자존심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에 소를 빌리지 못하고 돌아 나오는 발걸음이 더욱 처량하다. 헤진 샷갓, 축 없는 짚신, 개 짖는 소리는 처량한 느낌을 더욱 부추긴다.

박인로는 “외물에 초탈함이 이와 같을 때가 많았다. 이 때문에 집안은 더욱 가난해져 거친 비바람을 피할 수 없었다. 흉년이 들면 거친 밥을 먹거나 끼니를 잊지 못할 때도 있었으나 지냄에 마음은 편히 하였다.” 했다.<sup>72)</sup> <누항사>에 사실적으로 그려진 궁핍상은 작품 후반부에 안빈일념(安貧一念)에 충실하려는 태도를 더욱 선명하게 부각시키기 위한 문학적 표현기법, 혹은 “전란으로 인해 피폐한 현실 앞에서 이덕형이나 박인로와 같은 사족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하는 방향제시라 할 수 있다.<sup>73)</sup> 전후(戰後) 조선 사회가 삼해주나 수기치(雉)로 상징되는 물질과 이익 앞에서 반상의 윤리가 무너지고, 이웃 간에 유지하던 최소한의 의리나 신의도 약해져서 피폐해졌음을 잘 그려내고 있다. 이렇듯 취흥을 통한 우의의 돈독은 상황이나 관계의 역전을 부르기도 하는 것이다.

72) “其脫略外物多類此 以此家益落 所居不蔽風雨 歲儉蔬糲 或不繼 處之晏如也”(鄭葵陽, 附錄 行狀, 『蘆溪集』 卷2; 『文叢』 65, 235쪽).

73) 김광조, 「陋巷詞에 나타난 ‘歎窮’의 의미」, 『고전과 해석』 2집, 고전문학한문학회, 2007, 31쪽, 50쪽.

### 3.3. 인생무상과 해우(解憂)와 자기 위안

도연명의 “도(道)가 상실된 지 천년이 되려는데,/…/다만 세속의 명성만 돌아볼 뿐./이내 몸 귀하게 해 주는 것도/어찌 살아있는 동안뿐이지 않겠는가./이 한평생은 또 얼마나 되는가?/갑자기 번쩍이는 번갯불 같은데,/빨리 지나가는 백 년에/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이루려는가?”<sup>74)</sup> 사람들이 좇는 명성이나 귀함이란 영원한 것이 못 된다 했다. 유한한 인생이 주는 무상감, 늙어감에 대한 탄식으로 술을 찾는 경우가 많다. 송강 정철의 <장진주사> “흔 잔(盞) 먹새그려 또 흔 잔 먹새그려… ㄴ눈비 굴근눈 쇼쇼 리 브람불제 뉘 흔 잔 먹자홀고 흐믈며 무덤 우희 진나비 프람 불제 뉘우 춘들 엇디리”가 대표적 권주가(勸酒歌)이다.

- (1) “일월(日月)이 소임(昭臨)하고 두견(杜鵑)이 슬피 우니/혼혼(魂魂)인들 있을소냐 동풍(東風) 백오절(百五節)에/향화(香花) 일배주(一拜酒)는 자손 제사를 지내오나/영혼이 자취 없어 오는 줄 모르거든/먹는 줄 어이 알랴 어와 허사(虛事)로다/죽으면 허사로다 석송(石崇)이 부귀로도/천외(天外)에 부운(浮雲)이오 이 돈에 황금(黃金)도/노상(路上)에 녹토(鹿土)로다 호생오사(好生惡死)는…”(<옥설화답가(玉屑和答歌)><sup>75)</sup>

제 아무리 부귀를 누리도, 죽어서 제사상에서 받는 술잔은 살아생전 술한 잔만 못하다는 논리다. “알고 늙었는가 모르고 늙었노라/酒色(주색)에 잠겼거든 늙은 줄 어이 알리./귀 밋히 白髮(백발)이 훗날니니 그를 슬허호노라”(朴文郁, 『시조대전』 1867)의 화자는 주색에 빠져 세월을 보내는 중에 백발이 성성해졌음을 탄식한다.

- (2) 술을 너 즐기더냐 광약(狂藥)인 줄 알건마는

74) “道喪向千載…但願世間名 所以貴我身 豈不在一生 一生復能幾 倏如流電驚 鼎鼎百年內 持此欲何成”(陶淵明, 이치수 역주, 飲酒, 『陶淵明全集』, 문학과지성사, 2005, 162~163쪽).

75) 임기중, 『한국가사문학주해연구』 5, 아세아문화사, 2005, 284쪽.

일촌간장(一寸肝腸)에 만단수(萬端愁) 실어 두고  
진실로 술 곳 아니면 시름 풀 것 업세라  
(『고시조대전』 2851.2.)

- (3) 술을 취케 먹고 두렷이 안자시니  
억만(億萬) 시름이 가노라 하직(下直)한다.  
아히야 잔(盞) 그득 부어라 시름 전송(餞送)하리라.  
(『고시조대전』 2857.1.)<sup>76)</sup>

(2), (3)에서는 술이 광약임을 알지만 또 술잔에다 애타는 마음과 억만 가지 근심을 실어 보낸다고 했다. 이백(李白)은 <장진주(將進酒)>에서 값 비싼 갓옷(千金裘)을 팔아 좋은 술로 바꾸어 그대와 더불어 만고의 근심을 털어버리겠다 하였고,<sup>77)</sup> “왕효백(王孝伯)이 왕대(王大)에게 ‘완적(阮籍)을 사마상여(司馬相如)와 비교하자면 어떠한가?’라고 물으니, 왕대는 완적의 마음속엔 응어리가 있으니 술로써 그것을 풀어낸 것이다.”<sup>78)</sup> 술을 시름 해소 수단으로 여겼다.

<청산별곡>의 강술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있는가? 현재까지 강술을 ‘강(強)+술(酒)’, 강주(強酒), 즉 농도(濃度)나 주정(酒精) 강도가 강한 술로 보았을 때는, “삶의 고행에서 지칠 대로 지친 작자가 최후의 피신처를 술에서 찾아, 모든 고뇌를 망각해 보려 한다.”, “배부른 독에 조롱박꽃 누룩으로 빚은 강술을 실컷 마시고 혼절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sup>79)</sup> 라는 이해가 유효했다.

그러나 앞서 살폈듯이, 강술은 오메기술·이화주(진사가루술)과 같이 여름에 밥맛이 없을 때 수저로 떠먹어도 되고, 시원하게 물에 타서 마시던,

76) 김흥규 외, 『고시조대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2, 600~601쪽.

77) “徑須沽取對君酌 五花馬 千金裘 呼兒將出換美酒 與爾同消萬古愁”(李白, 將進酒, 『唐詩品彙』 卷26).

78) “王孝伯 問王大 阮籍何如司馬相如 王大曰 阮籍胸中壘塊 故須酒澆之”(『世說新語』 卷下之上, 任誕第二十三).

79) 이성주, 『증보 고려시대의 가요』, 민속원, 1998, 95쪽; 李勝明, 「靑山別曲 研究」, 『고려시대의 언어와 문학』, 한국어문학회 편, 형설출판사, 1975, 132쪽.

뱃속 든든하고 도수도 높지 않은(4~5%) 술이니 술에 의지하여 혼절하듯 세상일을 잊으려는 태도를 그렸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다만 강술은 넉넉한 집안에서 사돈집에 인사드릴 때 쓰일 만큼 귀한 술이었기에 화자의 발길을 멈추게 하는 제재가 되었을 것이다. <청산별곡>의 화자는 시름이 많고, 외롭고, 서럽고, 한스러운 인물이지만 “사스미 짚대에 올라서 희금(奚琴)을 쳐거를” 듣거나 “설진 강수를 비조라 잡스와는” 일에 매여 ‘지금·이곳’이라는 현실 공간을 훌쩍 떠나지 못한다. 심적으로 힘든 상황임에도 해금이나 강술과 같은 일시적 위안거리에 매몰되는 화자의 모습이 더욱 애처롭다.

술은 도취에 의한 일탈과 망각의 기능을 갖고 있다. 사람들은 인생의 유한성, 죽음의 허무가 주는 박탈감을 핑계로 쉽게 술의 유혹에 빠진다. 술을 마시면 일시적으로나마 현실의 제약, 심리적 긴장 상태에서 벗어나 위안을 얻고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암담하고 조심 많고 긴장된 사람들은 술이 지닌 이런 일탈과 망각 기능을 즐긴다. <장진주사>나 위의 (1)~(3)은 술 한 잔이 만 가지 수심을 없앤다는 사고에 기반 한다. 이와 같은 생각은 호라티우스의 “현재를 잡아라, 가급적 내일이란 말은 최소한만 믿어라(Carpe diem, quam minimum credula postero)”라는 뜻을 담은 ‘카르페 디엠(carpe diem)’의 현세적 쾌락주의와 비슷하다.<sup>80)</sup> 내일의 근심은 내일로 미루고 지금 이 순간의 안일과 즐거움을 만끽하려는 자세이다.

### 3.4. 벽사(辟邪)와 치병(治病)과 축수(祝壽)

- (1) 오월 오일 오날인가 집집이 창포주라  
경도요 슈성곡은 명나슈변 슬프도다  
아마도 턴중가절은 굴원인가  
(『이세보 시조집』 48)<sup>81)</sup>

80) 李在銑, 앞의 책, 215쪽.

81) 진동혁, 『註釋 李世輔 時調集』, 정음사, 1985, 53~54쪽.

- (2) 올해는 단오 날을 우정(郵亭)에서 지내니  
 창포주(菖蒲酒) 한 병인들 누가 보내 주겠나.  
 주악떡을 오늘 물에 던져 보지 못하니,  
 내 도리어 깨어난 굴원인 듯하여라.”<sup>82)</sup>

흔히 ‘길함의 정월, 흉함의 5월’이라 한다. 5월은 일찍부터 상서롭지 못한 달(惡月)로 분류해, 조심스럽고 금기도 많다. 특히 5월 5일은 흉함 중의 최고라 하여 불길한 날이라 한다.<sup>83)</sup> 단오에 여자들이 창포물로 머리를 감고, 또 창포뿌리로 비녀를 만들어 수복(壽福)이라 새기거나 그 끝에 연지(臙脂)라는 주(朱)를 칠하여 머리에 꽂는 것도 모두 벽사(辟邪)의 의미이다.

(1)의 경도요(競渡謠)는 노를 저어 물을 빨리 건너는 배 경주<sup>84)</sup>에서 부르는 노래로 초월(楚越) 지방의 수신제(水神祭)를 계승했다. 음기를 도와 음양이 조화를 이루기를 기원한 것이다. 굴원을 추모한 의식인 (2)는 육조(六朝)의 풍습이다.<sup>85)</sup> 주악떡[糰]을 물속에 던지는 의식은 “굴원이 5월5일 떡라수(汨羅水)에 몸을 던져 죽으니, 초나라 사람들이 이를 슬퍼하여 이날 대나무 통에 밥을 담아 물에 던져 제를 올리는” 풍습이다.<sup>86)</sup>

창포주를 오래 복용하면 귀와 눈이 맑아지고, 풍비(風痺)를 다스려 혈액을 통하게 하고, 골다공증(骨萎)을 다스리어 연수(年壽)를 늘린다 했다. 단오에 내자사에서 관례대로 창포주를 올렸다는 것을 보면,<sup>87)</sup> 궁중에서도 창포주를 마셨음을 알 수 있다. 창포에는 벽사와 제액(除厄)의 의미가 담

82) “今年端午在郵亭 誰送菖蒲酒一瓶 此日不宣沈角黍 自家還是屈原醒”(鄭夢周, 端午日戲題, 『圃隱集』 卷1).

83) 蕭放(샤오팡), 『중국인의 전통생활풍습』, 국립민속박물관, 2006, 252쪽.

84) 중국 호남성(湖南城)에서 큰 배·작은 배에 여러 색 깃발을 달고 북에도 꽃을 장식하고서 펼치는 배 경주이다.(“湖南人家重端午 大船小船競官渡 彩旗花鼓”, 李東陽 撰, 競渡謠, 文續稿 1, 『懷麓堂集』 卷91).

85) 蕭放(샤오팡), 앞의 책, 262쪽.

86) “屈原 五月五日 投汨羅水 楚人哀之 至此日 以竹筒子貯米 投水 以祭之”(吳均, 『續齊諧記』).

87) 『인조실록』 권38, 인조 17년(1639) 5월 4일 경신 3번째 기사.

겨있고, 창포탕과 창포주 등으로 질병을 예방·퇴치할 수 있다고 믿었다. (1)과 (2)에서는 창포주를 굴원의 충절과 연결한다. 반대과의 참소를 당하여 억울하게 소외당하고, 또 장사(長沙)에 귀양 갔다가 빠져죽은 ‘명나슈 변’(떡라수 가)의 노래를 불러 굴원의 충절을 기렸다. “물가 북소리 어찌 이리 요란한가. 여럿이 물에 머리를 조아리며 굴원을 향해 비는구나. 굴원이 세상을 등진 지 천년이 지났건만, 배안에 가득한 슬픈 노래는 아직까지도 쟁쟁하구나.”<sup>88)</sup> 그 근원이 보인다.

나쁜 액과 질병을 떨쳐버리려는 음주풍속으로 유두음(流頭飲)도 있다. “6월 15일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아 상서롭지 못함을 없앤다. 그리고 모여서 술을 마시는데 이를 유두음이라 한다. 혹 폭포에서 머리를 풀어헤쳐 물을 맞으며 간질(癩疾)을 떨쳐버리려 했으니, 이를 ‘타두회(打頭會)’라고 한다.”<sup>89)</sup> 하였다.

- (3) “굴원이 충심으로 세상에 맞서다가 쫓겨나 원상(沅湘)에 몸을 던지니, 훗날 초나라 사람들이 그를 사모하여 수선(水仙)이라고 불렀다. 그 혼이 하늘 위를 배회하고, 정령이 때때로 상강(湘江)에 머문다고 여기어 초나라 사람들이 그를 위해 사당을 세워, 한(漢) 말까지도 명맥이 이어졌다.”<sup>90)</sup>

유두음의 풍속도 굴원에 대한 애도와 연결 짓는다. 본디 단오나 유두일에 질병을 떨쳐버리려는 풍속과 굴원을 추모하는 의식은 기원이 달랐던 것으로 보이지만, 백성들이 끊임없이 정치 발전을 소원하고, 나라 운명에 깊은 관심을 가지어, 물에 빠져 죽은 굴원의 강직함을 높이 평가하고 그

88) “水濱擊鼓 何喧闐 相將叩水 求屈原 屈原死已 今千載 滿船哀唱 似當年”(蘇軾, 竹枝歌, 『東坡詩集註』 卷32).

89) “六月十五日 沐髮於東流水 祓除不祥 因會飲 號流頭飲 或於瀑布散髮承之 以祛風眩 謂之打頭會”(『中京誌』 卷2, 風俗; 崔南善 편, 韓國地理風俗誌叢書(22) 『中京誌』, 景仁文化社, 1989, 14쪽).

90) “後懷王 好進姦雄 羣賢逃越 屈原以忠 見斥隱於沅湘 … 乃赴清冷之淵 楚人 思慕謂之水仙 其神遊於天河 精靈時降湘浦 楚人爲之 立祠 漢末猶在其上”(王嘉, 『拾遺記』 卷10).

에게 수신(水神)·수선(水仙)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단오·유두일과 함께 기억한 것으로 보인다. 즉, 물위에 머무는 굴원의 혼을 달래면서, 나쁜 질병도 함께 물러가고, 음양이 조화를 이루어 세상이 온전하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굴원이 죽은 ‘5월 5일’, ‘물’, ‘씻어 내림’이라는 유사성이 합해져 단오-창포주-굴원을 습관적으로 연상했던 것이다.

- (4) 창(窓)맞기 국화(菊花)를 심거 국화밧티 술을 비저두니  
술 너자 국화 피자 벗님 오자 들 도다 온다.  
아희야 거문고 청처라 밤새도록 놀리라.  
(『시조대전』 2718)

- (5) 동리(東籬)에 국화 피니 중양(重陽)이 거에로다.  
자채(自蔡)로 비즌 술이 흐마 아니 니것느냐.  
아희야 자해황계(紫蟹黃鷄)로 안주(酒) 장만흐야라  
(〈전원사시가〉 秋 10-6)(辛啓榮, 1557~1669)

(4)는 민요 “창밖에 국화를 심어/국화 밑에다 술빛아 놓고/술 익자 국화  
꽃 피자/임이 오시자 달이 등실/동자야 국화주 걸러라/임에게로 체투로  
떡자“와<sup>91)</sup> 매우 흡사하다. (5)는 꽃게와 닭을 안주로 놓고 국화주를 마시  
겠다고 했다. 9월 9일 중양절이 되면 상하층 할 것 없이 국화주를 마셨으  
니 국화주를 가히 국민주라 할 만하다.

중양절에 높은 곳에 올라 국화주를 마시는 풍속<sup>92)</sup>은 치병에서 시작하  
여 장수 기원으로 이어진다. <동동>에서 ‘藥이라 먹논’이라 한 술은 황화  
주이다. “동쪽 울타리에 몇 떨기 국화,/중양절 기다리지 않고 일찍 피었  
네./아이 불러 한 가지 꺾으라고 해서,/아내에게 새 술을 거르라 하였네./

9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7-4, 경북 성주군 대가면, 1979년 이  
남이 구연.

92) “都俗登南北山飲食以爲樂 盖襲登高之古俗也 青楓溪 後凋堂 南北漢道峯水落山有  
賞楓之勝”(홍석모 저, 정승모 역, 『東國歲時記』, 풀빛, 240쪽); “亦復起飲嚼霜藥 未  
能免俗聊爾耳 山妻笑勸良足歡 何必登高爛漫醉”(李奎報, 重九日既以手病未出游,  
『東國李相國集』 卷7, 古律詩).

이로부터 술통 속 그 물건들/맑은 향기로 내 잔을 훈훈케 하리”나<sup>93)</sup> “누  
 군가 사람 통해 국화주 보내주니,/노란 국화 등등 떠 술잔에 향기 진하네  
 (何處白衣人送酒 黃花來泛一盃香)”<sup>94)</sup>에서와 같이 새로 빛은 국화주에서  
 풍겨 나오는 은은한 국화 향을 감각적으로 묘사했다. “거처를 새로 옮겨  
 국화 심을 틈도 없었네./더욱이 중앙절을 병중에 보냈으니,/언제나 처마  
 앞에 국화의 새싹 틈워,/향기 즐겨 잘게 씹으며 해묵은 병 고쳐볼까.”에서  
 도<sup>95)</sup> 국화주에 등등 뜬 국화를 잘게 씹어 해묵은 병을 고치겠다고 했으  
 니, 술 속에 담긴 국화(黃菊, 霜藥)는 단지 향을 내는 재료가 아니라 잘게  
 씹어 삼키는(嚼, 細嚼) 치료제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백발의 늙은 몸  
 에 병도 많은데, 국화주를 재차 따라 마시노라니, 노쇠함 붙드는 효력도  
 있거니와, 흥을 풀때 절로 시가 이루어지네.”,<sup>96)</sup> “국화주는 연년(延年),  
 익수(益壽)하고 풍현(風眩)을 다스린다.”<sup>97)</sup> 한 것을 보면, 국화주는 간질  
 을 치료하고 수명을 길게 하는 약술로 인식하고 마셨음을 알 수 있다.

(6) 남산(南山)은 천년수(千年壽)요 북해(北海)는 만년배(萬年杯)라  
 북해의 잔을 드리 남산수(南山壽) 올리거든  
 오늘에 이 술을 잡수시면 천년만년(千年萬年)  
 (김홍규 외 『고시조』 841.1.)<sup>98)</sup>

(7) 잡으시오 잡으시오 이 술 흔잔 잡으시오  
 이 술이 술이 아니라 한무제(漢武帝) 승로반(承露盤)에 시실 맞은 거시오니  
 이 술 흔잔 잡으시면 천년만년 스오리다

93) “東籬數叢菊 不待重陽開 呼兒折一朵 命婦篇新醅 從此尊中物 清香熏我杯…飲中八  
 仙子 骨化爲塵埃 高陽嗜酒輩 一去無復迴。”(元天錫, 九月五日 與客小酌, 『耘谷行錄』  
 卷2, 詩).

94) 成渾, 村人送酒栗谷, 『牛溪集』 卷1; 『文叢』 43, 10쪽.

95) “新居未暇種黃花 況是重陽病裡過 安得軒前金蕊嫩 吹香細嚼瘠沈痾.”(李集, 乞菊一  
 絕呈葵軒, 『遁村雜詠』 七言絕句; 『文叢』 3, 346쪽).

96) “白髮身多病 黃花酒再斟 扶衰如有效 遣興自成吟”(李穡, 『牧隱集』 卷11, 天台判事  
 携酒見訪 曹溪猊公適至).

97) “延年益壽治風眩”(『東醫寶鑑』 卷1, 湯液篇 酒).

98) 김홍규 외, 위의 책, 179쪽.

(김홍규 외 『고시조』 4167.2.)<sup>99)</sup>

옛날 사람들은 술이 장수하게 하며 젊음을 간직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여겼다. 그래서 술로써 장수를 축원하며 노인을 받들어 모셨다. 그리고 주(酒)와 구(久)는 발음이 비슷해서[jiũ] 술로써 장수를 축하하고 기원하는 것은 ‘오래’ 그리고 ‘길다’는 뜻으로서 나이 많은 연장자에 대한 아름다운 축하를 드리기에 아주 적합한 것이다.<sup>100)</sup> 위의 시조에서도 “이 술을 잡수시면 천년만년 살 것이라” 했는데, 아무리 약술이라 한들 술을 바치며 장수를 기원한다는 일은 얼마나 이율배반적인가! 『동의보감』에서도 “술을 오래 마시면 신(神)을 상하고 수(壽)를 던다.”, “술은 성질이 열하고 독이 있어, 과음하면 몸이 폐하고 정신이 어두워진다.” 하였으니 말이다.

술로써 축배를 들며 장수를 기원하는 전통은 개화기기사까지 그 맥을 잇는다.

(8) “잡으시오 잡으시오 이 술 일흠 초혼酒라 이 술 혼 잔 잡으시면 정부상(政府上)에 망국귀(亡國鬼)와 정당계(政黨界)에 매국노(賣國奴)가 춘설(春雪)갓치 소멸(消滅)하고 병든 국맥(國脈) 소복(蘇復)하야 건강장수(健康長壽) 하오리다 ~ 이 술 일흠 자강주(自強酒)라 이 술 혼 잔 잡으시면 의뢰심(依賴心)이 진정(鎮靜)되여 ~ 이 술 일흠 벽사주(辟邪酒)라 ~ 이 술 일흠 합환주(合歡酒)라 이 술 혼 잔 잡으시면 이천만심(二千萬心) 단합되여”(〈대한매일신보〉 1909년 12월 21일자)<sup>101)</sup>

위의 <권주가>는 술에는 죽은 혼까지 불러오는 효력이 있으므로 나라를 망국으로 이끄는 귀신들과 매국노를 봄눈 녹듯이 사라지게 해서 국맥을 소생케 하고 나라가 건강하게 장수하게 해 달라는 기원이 담겨있다. 술에 건강장수의 의미뿐만 아니라 자강(自強)과 벽사(辟邪), 합환(合歡)의 의미를 부여하여, 당시의 사회상을 비판하고 한국이 하루 속히 노예사관

99) 김홍규 외, 위의 책, 885쪽.

100) 邑心文 저, 임승권 역, 『중국 풍류를 마시다』, 차이나하우스, 2011, 56~57쪽.

101) 임기중, 『한국가사문학주해연구』 2, 아세아문화사, 2005, 466쪽.

을 극복하고 자주독립, 자강개혁의 힘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술에다 장수의 기원을 담던 오랜 전통이 확대 전승된 예라 할 수 있다.

### 3.5. 초월의 상상과 신선(神仙) 세계의 구현

신선을 흉내 내는 것은 주객들이 꿈꾸는 풍류 세계의 최고봉이다. “술기운이 몸에 퍼지니 난생처음 술맛을 보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하늘을 날듯 기분이 좋아졌다.”<sup>102)</sup>는 술을 마시는 황홀경을 잘 표현하고 있다. “비단 장막에 비단 병풍에 둘러 있고/유리잔에 신선주(神仙酒) 담겨 있네./취한 볼 갈수록 깨어나기 힘들고/부끄러운 얼굴 당장 상기된다.”,<sup>103)</sup> “이백은 고래를 타고 하늘로 날아올라/부용성 안에서 신선들과 어울려 놀다가/술 취해 서왕모(西王母)의 구하(九霞) 술잔을 뒤엎고/다시금 인간 세상에 삼십 년 귀양 왔어라”<sup>104)</sup> 보면, 역대의 내로라하는 문인들은 선계(仙界)를 꾸미고, 그들의 초월적 세계를 상상하고 본뜨는 일을 낙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월하독酌(月下獨酌)>에서 “성인과 현자들도 이미 다 마셨으니, 하필 신선(神仙)을 찾겠는가!”<sup>105)</sup>라고 했지만 사실상 이백은 신선 세계를 추구한 문인 중 가장 앞자리에 서있다.

- (1) “아름다운 절벽 계수(桂樹) 나무의 그늘에서 맑은 물에 발을 씻으며 산상에서 머리를 풀고, 신선주를 기울이며 스스로 기뻐합니다. 이런 때를 당하여 만약 노래 잘하는 한 사람이 곽경순(郭景純)의 유선시(游仙詩)를 읊어서 권주가(勸酒歌)로 해준다면 어찌 인간의 아주 유쾌한 일이 아니리오.”<sup>106)</sup>

102) 칼 오베 크나우스고르 저, 손화수 역, 『나의 투쟁 1』, 한길사, 2016, 109쪽.

103) “羅帷錦繡屏 霞液玻璃盃 醉頰入難醒 慙腮生未晚”(李奎報, 『東國李相國集』 後集卷2, 古律詩).

104) “李白騎鯨飛上天 芙蓉城裏追群仙 醉翻王母九霞觴 再謫人間三十年”(權鐸, 贈李明應用前韻, 『石洲集』 卷2; 『文叢』 75, 19쪽).

105) “已聞清比聖 復道濁如賢 賢聖既已飲 何必求神仙”(李白, 月下獨酌 二首, 『李太白集注』 卷23).

신선 세계에 대한 초월의 상상에는 아름다운 자연과 시와 노래, 그리고 술이 필수적인 소재였다. “후원을 구경한 종재들이 전(箋)을 올려 사은하기를, ‘눈길에 닿는 경물은 환희를 솟아오르게 했고, 머무는 곳마다 주연을 베풀어주셨습니다. 아름다운 꽃 만발하여 늦봄의 화창한 경치 마음껏 구경했고, 신선주 향기로워 상청(上淸)의 진귀한 술에 흠뻑 취했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니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sup>107)</sup> “함지(咸池)의 북소리에 운문(雲門)의 거문고, 신선주 따라 올리면서 해마다 축원하오리다.”<sup>108)</sup> 보면, 신선주는 궁중의 안팎에서 불로장생의 술로 여기며 유선(游仙)의 필수요소였음을 알 수 있다.

- (2) 채홍철이 음률을 알아서 가사를 지어 가비(歌婢)에게 노래를 시켰는데, 그 악보는 비밀로 하여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으니 아는 자가 없었다. 하루는 중화당(中和堂)에 술을 설치하고 여러 늙은이를 맞이하여 주홍이 도도해지자 갑자기 허공에서 가는 풍악이 들리더니, 여악이 지붕에서 구름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오니 마치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같았다. 드디어 술통 앞에 벌여 앉아서 <자하동곡(紫霞洞曲)>을 창하였다.<sup>109)</sup>

고려시대에 채홍철이 신선 세계를 극적으로 재현한 부분인데, 마치 요즘에 잘 만들어진 공연 실황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다. 현·관악기가 어우러지니 마치 천상의 소리와 같았다. 후에 채홍철이 객들에게 “자하동에는 예부터 신선이 살았다”고 거짓을 이르고 밤이 되면 이 소리가 들리니 모든 손님들이 진짜로 믿었다. 하루는 노래 소리가 점점 가까워져 중화당 뒤에 이르고, 곧바로 당 앞쪽의 뜰에 이르렀다. 채홍철이 내려와 무릎을

106) “丹崖桂樹之陰 濯足清泉 散髮巖岫 的仙液以自陶 當此時 若得一謳者 唱郭景純游仙詩以侑之 豈不人間大快事也 念及此 則悔失奇貨矣 兄見之必大噓也 不具”(許筠, 與趙持世書, 『惺所覆瓿藁』 卷10; 『文叢』 74, 223쪽).

107) 『중종실록』 권93, 중종 35년(1540) 3월 10일 임인 1번째 기사.

108) 『정조실록』 권42, 정조 19년(1795) 윤2월 13일 을미 1번째 기사.

109) “洪哲曉音律 製歌詞 令歌婢 唱之 其譜秘不傳 人未有知之者 一日 置酒中和堂 邀諸耆老 酒半 忽聞洞中細樂聲 洪哲設綵雲梯 令女樂 自屋上乘梯而降 似若自天而下 遂列坐樽前 唱紫霞洞曲”(『增補文獻備考』 卷106, 樂考17, 俗樂).

끓고, 여러 객들은 머리를 조아리며 굽히고 엎드려 노래를 들었다. 이로써 세상에는 이 마을에 신선이 있다고 전해졌다.<sup>110)</sup> 채홍철의 공연은 나이 많은 이를 부양(扶養)하고, 연령(年齡)과 덕행을 숭상하기 위한 것이다.

유하주(流霞酒)나 송로주(松露酒)는 신선이 마신다는 술이다. 권섭의 <영삼별곡(寧三別曲)>에는 “뉴하주 ㄱ득 부어 들빛출 셋거 마셔/흉금(胸襟)이 황낭(晃朗)하니 저기면 놀리로다./백년(百年) 텃디(天地)의 우락(憂樂)을 모르거니/일몽진환(一夢塵寰)의 영욕(榮辱)을 내 아더냐.”라<sup>111)</sup> 하였고, 정철의 <관동별곡> “일이 도흔 세계(世界) 늣대되 다 뵈고져/뉴하주(流霞酒) ㄱ득 부어 들드려 무론 말이/영웅(英雄)은 어디 가며 스선(四仙)은 기 뉘러니/아모나 만나보아 넷 괴별 못자하니/선산(仙山) 동히에 갈 길도 머도 멀사”, <성산별곡(星山別曲)> “손인동 주인(主人)인동 다 니저 브려세라/당공(長空)의 췌는 학(鶴)이 이 골의 진선(眞仙)이라/요덕(瑤臺) 월하(月下)의 흥혀 아니 만나산가/손이서 주인(主人)드려 널오디 그디 권 가 흐노라”에도 달빛, 학, 연꽃 등의 자연과 인간이 신선주를 앞에 놓고 조화를 이루는 상상 세계를 담고 있다.

(3) “유유(悠悠)흔 지난일은 한조각 구름일다/싱전(生前)의 낙스(樂事)를 한즌술노 갑흐리라/유리종(琉璃鐘) 호박비(琥珀杯)의 유하주(流霞酒) 가 득부어/놀다리고 놀아보며 어디다가 전(傳)할소냐/을밀디(乙密臺) 늘근 신선(神仙) 이 술 한즌 잡아보소”(〈대동별곡(大同別曲)〉)<sup>112)</sup>

(4) “성관(星冠) 월패(月佩)을 꿈애나 보자 하야/송근(松根)을 놓피 베고 낮잠을 잠간(暫間) 드니/청동(靑童)이 나을 잡여 봉래산 건너 뵈니/松노酒 ㄱ득 부여 나 잡고 저 권(勸)홀 제,/장생(長生)게 못썩 말을 반튼채 못들어/구고(九臯) 일성(一聲)의 선몽(仙夢)을 놀나 썩이”(위세보, <금당별곡(金塘別曲)〉)<sup>113)</sup>

110) “絲管俱起 隱然如天上聲 中庵誣其客 此後紫霞洞 舊有神仙 夜則又有此聲 諸客信之一日 曲聲漸近 至於中華堂後 俄而直至堂前中庭 中庵下跪諸客稽首 莫不俯伏而聽 以此世傳此洞有神仙云”(南孝溫, 松京錄, 『秋江集』 卷6; 『文叢』 16, 117쪽).

111) 임기중, 『한국가사문학주해연구』 13, 아세아문화사, 2005, 65쪽.

112) 임기중, 『한국가사문학주해연구』 5, 아세아문화사, 2005, 386쪽.

(3)은 평양 대동강 가에 가서 놀면서 주변의 유적들을 보고 그 경치를 노래한 것이고, (4)는 금당도(金塘島)와 만화도(萬花島)를 유람하는 감상을 적은 작품이다.

“신선=불사장생”의 등식을 만들어 신선주의 주방문(酒方文)에는 인간의 몸에 좋다는 갖가지 한약재를 골고루 갖추어 넣는다. 각 부재료의 비율과 온도를 맞추기가 쉽지 않아 제조 과정도 의외로 복잡하다 한다. 먼저 찹쌀을 물에 깨끗이 씻어 하룻밤 불렀다가 건져서 우슬·하수오·구기자·천문동·맥문동·생지황·숙지황·인삼·당귀·육계 등 10가지 한약재를 가루로 뺀다 섞어 넣고, 시루에 안쳐 고두밥을 지어 차게 식으면 감국과 지골피를 달인 물과 누룩을 섞어 술미를 빚고 술독에 안친다. 술독은 무명보자기로 덮어 1차 발효한 뒤, 온도를 낮추어 다시 2차 발효를 시키고 이를 여과 후 정제하여 그대로 마시면 신선약주가 되고, 소줏고리를 이용하여 증류하면 신선소주가 된다. 신선주의 채주율은 약주의 경우 45%, 소주의 경우 20~36%로 매우 낮은 대신 술맛이 진하고 향이 강하여 그 맛을 보면 반드시 다시 찾게 되는 술이라 한다.<sup>114)</sup>

‘선(仙)’은 “늙어도 죽지 않는 것”이고, 신선(神仙)이란 죽음을 초월한 존재로서, 육체의 갱신(更新)을 통하여 현세의 개체가 영속되기를 추구하는 존재이다.<sup>115)</sup> 『한서(漢書)』에는 “신선이란 참된 생명을 유지하고 세상 밖에서 노니는 사람으로 맑은 뜻을 유지하고 마음을 가라앉혀 삶과 죽음의 영역을 같이하여 가슴 속에 슬픈 감정이 없는 존재”로<sup>116)</sup> 신선을 정의하고 있다. 위의 (1)~(4)에서 “백년(百年) 텃디(天地)의 우락(憂樂)을 모르거니 || 일몽진환(一夢塵寰)의 영욕(榮辱)을 내 아더냐.”에서는 고통과 불만의 현실로부터 벗어나 현실을 초월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고, “당공(長空)의 쫓는 학(鶴)이 이 골의 진선(眞仙)이라 || 요덕(瑤臺) 월하(月下)의

113) 임기중, 『한국가사문학주해연구』 1, 아세아문화사, 2005, 175쪽.

114) 박록담, 『전통주』, 대원사, 2004, 99~100쪽.

115) 정재서, 『不死의 신화와 사상』, 민음사, 2005, 32~34쪽.

116) “神僊者 所以保性命之眞 而游求於其外者也 聊以盪意平心 同死生之域 而無怵惕於胷中”(『前漢書』 卷30, 藝文志10, 方技略 神僊家).

헝혀 아니 만나산가 ॥ 손이셔 주인(主人)드려 날오디 그디 권가”나 “을밀 디(乙密臺) 늘근신선(神仙) 이 술 한잔 잡아보소”에서는 아예 자신들과 신선을 동일시하였다. “선몽(仙夢)을 놀나 썩이”는 신선을 만나는 꿈에서 문득 깨어나는 순간의 포착이다. 신선주나 송로주는 인간의 만남을 순간이 나마 신선의 만남으로 바꾸어주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즉, 신선주를 통해, 문득 현실적인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 생사를 초월하고 인생의 번뇌를 털어버리려는 자유롭고 초월적인 상상을 하게 되는 것이다.

군자의 덕을 지니고, 서리를 이겨내는 꽃꽃한 기상을 지니어 국화를 신선의 음식으로 여기기도 했다.<sup>117)</sup> 여기서 <동동> 9월령의 의미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동동>의 “몸하 헝올로 녀셔”(정월), “백종(百種)을 배(排)헝여 두고 니믈 힌디 녀가져 원(願)을 비습노이다.”(7월), “니믈 피셔 녀곤 오늬낫 가배(嘉俳) 샷다.”(8월), “고우닐 스식옴 녀셔”(11월)를 보면, 시적 화자와 임은 이별한 게 분명하다. 그러나 “즈믈 힐 장존(長存)헝살 약이라 받습노이다.”(5월), “도라보실 니믈 적곰 좇니노이다.”(6월), “니미 알퓌 드려 얼이노니”(12월)는 마치 임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 혼동을 자아낸다. 그동안 “살았다면 이제 돌아올 텐데,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하는 것은 임이 이미 죽었기 때문인가? 그러나 그런 일이란 믿고 싶지 않아 그저 오늘도 기다릴 뿐이다.”라고<sup>118)</sup> 해독은 임의 생사를 불분명하게 한 <동동>의 표현 때문이다.

『고려사』 약지에는 “<동동>의 가사는 대체로 선어(仙語)를 본받았다”고 했다. <동동>은 신선세계의 언어, 즉 선어를 빌려와 임과 삶과 죽음의 구분을 초월한 ‘공존’을 추구하고 신선세계에서와 같은 ‘영원과 장수’를 누리하고자 하는 소망을 표현했다.<sup>119)</sup> 사랑과 그리움이 애절하면 임이 곁에 없어도 있는 것처럼 여기므로 <동동>의 시적화자는 임이 살아있을 때의

117) 임성철, 『일본 고전시가문학에 나타난 자연』, 보고사, 2002, 454쪽.

118) 이성주, 『중보 고려시대의 가요』, 민속원, 1998, 179쪽.

119) 황병익, 「動動 頌禱之詞 盖效仙語 의미 고찰」, 『고전문학연구』 37, 한국고전문학회, 2010, 33~60쪽.

관습대로 약을 드리고, 상을 차리고, 국화주를 바친 것이다. 이는 해마다 해당 절기와 세시풍속을 행할 때가 되면 임이 떠올라 그리움이 간절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죽은 이를 향해 자신의 고독과 바람을 고백하면서 ‘나에게 당신은 참으로 소중한 존재였음’을 실토했다. 인간이야 항상 관계가 영원하기를 희망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 <동동>의 9월령처럼 헤어지고 나서 그리워하는 모습은 애처로움을 배가한다. 그러므로 <동동>은 신선세계의 영원함에 대한 초월적 상상을 통해 임을 위한 죽을 만큼의 그리움을 담았다.

## 5. 마무리

전통주를 마시는 일은 선조들의 일상 가운데 하나였으므로 고전문학 작품에 술을 즐기는 풍속이 매우 자주 등장하지만 그동안 한국의 술 문화와 문학작품의 분석을 연관 짓는 연구는 그리 많지 않았다. 전통주를 연구하는 사람들과 문학을 탐구하는 사람들이 서로 전문 분야를 의식하여 영역을 넘나들지 못한 데 1차 원인이 있을 것이다. 문학 작품의 의미는 갖가지 소재와 제재, 작가의 삶과 사회 문화적 배경과 어우러져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그 전통주가 어떤 것인지, 어떠한 기원과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를 파악하여 작품 해석에 대입하는 일은 꼭 필요한 일이다.

향후 『음식디미방』(『閨壺是議方』)이나 『주방문』을 비롯한 여러 문헌에 적힌 전통주 제조법과 의미를 바탕으로 선조들의 풍류 세계와 문학 세계를 천착하려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고려사』 성종(成宗) 조를 보면, “겨울 10월 기해일에 성례(成禮)·낙빈(樂賓)·연령(延齡)·영액(靈液)·옥장(玉漿)·희빈(喜賓) 등 주점 6개소를 설치하였다.”<sup>120)</sup> 하는데, 이 가

120) “冬十月 己亥 置酒店六所 曰成禮 曰樂賓 曰延齡 曰靈液 曰玉漿 曰喜賓”(『高麗史』 卷3, 世家3, 成宗 2년(983)).

운데 영액·옥장은<sup>121)</sup> 술을 미화한 표현이고, 예를 갖추고 수명을 늘리며 손님을 즐겁게 하는 것 등은 술의 효용가치이다. 이는 주객들의 과도한 의미 부여가 아니라 일상에서 술의 쓰임을 살핀 관찰의 결과일 것이다. “술은 뉘 삼기며 離別(이별)은 뉘 닳신고/술 나즈 이별 나즈 이별 後(후)에 술이 나니/醉(취)하고 님 이별하니 그를 슬허호노라”나(『시조대전』 1732) “술이 취호거든 씨지 말게 삼기거나/님을 만나거든 離別(이별) 업게 삼기거나/술 씨고 님 이별하니 그를 슬허호노라”는(『시조대전』 1746) 이별의 아쉬움이라는 의미를 담아 술을 마시는 장면을 담고 있다.

한시나 다른 고전문학 작품에까지 연구 대상을 확대한다면 더 많은 술, 더 많은 의미가 있을 것이므로 본고에서 미처 다 살피지 못한 음주풍속이 있을 것이다. 예컨대, “웁고 그름 따지면서 처음 간다 말을 하며, 항상 술에 빠져 삶을 헐뜯으며 조롱했지.”나<sup>122)</sup> 송강 정철이 “내가 술을 즐기는 이유가 넷 있으니, 불평이 하나요…”를<sup>123)</sup> 보면 불만을 달랜다거나 “술은 무언가를 시작하게 해준다. 나는 술을 마시면서 그 무언가에 끌려들어간다.”처럼<sup>124)</sup> 자기를 성찰하고 무언가를 결심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도 술이 가지는 의미일 수 있겠다. 본고는 작품 속에서 전통주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에 국한하여 술이 가지는 의미와 작품 속에서의 의미를 살폈지만, 향후 우리나라의 음주풍속은 단순히 소재·제재의 측면을 넘어 작품의 주제나 화자의 내면과 연관 지어 고찰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121) ‘靈液’은 “이슬, 영묘한 물”이고, ‘玉漿’은 “신선이 마시는 음료, 즉, 달고 맑은 샘물이나 맛있는 술”로서 술을 미화한 표현이다.

122) “…讐勘是非說初去 刺口嘲我恒沉湎”(白光弘 저, 鄭珉 역, 詩酒戰, 『岐峯集』, 亦樂, 2004, 165쪽).

123) “某之嗜酒有四 不平一也 遇興二也”(鄭澈, 戒酒文, 『松江集』 原集 卷2; 『文叢』 46, 156쪽).

124) 칼 오베 크나우스고르 저, 손화수 역, 앞의 책, 113쪽.

## 참고문헌

『仕學規範』, 『세종실록』 권62, 『山林經濟』 卷2, 『洌陽歲時記』, 『管子』 卷19, 『耘谷行錄』 卷5, 『說郛』 卷106, 『陽村集』 卷5, 『四佳詩集』 卷51, 『洌陽歲時記』, 『本草綱目』, 『百菊集譜』 卷3, 『閨閣叢書』 卷3, 『西京雜記』 卷3, 『陽村集』 卷3, 『櫟翁稗說』 後集2, 『容齋集』 卷4, 『鶴峯續集』 卷1, 『大觀齋亂稿』 卷3, 『無名子集』, 『私淑齋集』 卷5, 『自菴集』 卷2, 『詩經疏義會通』, 『松江集』 原集 卷2, 『高峰續集』 卷1, 『存齋集』 卷21, 『孤臺日錄』 卷3, 『東國李相國後集』 卷6, 『영조실록』 권33, 『秋官志』(下), 『芝峰類說』 下, 『太平閑話滑稽傳』 卷1, 『東醫寶鑑』, 『蘆溪集』 卷2, 『陶淵明全集』, 『唐詩品彙』 卷26, 『世說新語』, 『圃隱集』 卷1, 『懷麓堂集』 卷91, 『續齊諧記』, 『인조실록』 권38, 『東坡詩集註』 卷32, 『中京誌』 卷2, 『拾遺記』 卷10, 『한국구비문학대계』 7-4, 『東國歲時記』, 『耘谷行錄』 卷2, 『牛溪集』 卷1, 『遁村雜詠』, 『牧隱集』 卷11, 『東醫寶鑑』 卷1, 『石洲集』 卷2, 『惺所覆瓿藁』 卷10, 『李太白集注』 卷23, 『중종실록』 권93, 『정조실록』 권42, 『增補文獻備考』 卷106, 『秋江集』 卷6, 『前漢書』 卷30, 『高麗史』 卷3, 『岐峯集』, 『松江集』 原集 卷2.

- J. Harrison, 오병남·김현희 역, 『고대 예술과 제의』, 예전사, 1996.  
 高英姬, 「『시경』과 『서경』을 통해 본 음주문화」,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63,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회, 2015.3.  
 김광조, 「陋巷詞에 나타난 ‘歎窮’의 의미」, 『고전과 해석』 2집, 고전문학한문학회, 2007, 31~55쪽.  
 金基卓, 「蘆溪歌辭의 現實認識-陋巷詞를 중심으로」, 『嶺南語文學』 7, 영남어문학회, 1980, 1~26쪽.  
 金星元, 『韓國의 歲時風俗』, 明文堂, 1994, 185쪽.  
 김홍규 외, 『고시조대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2.  
 박록담, 『전통주』, 대원사, 2004.

- 박록담, 다시 찾은 전통 명주 『우리 술 빛는 법』, 오상, 2002.
- 朴綠潭, 태릉 삼해주, 『韓國의 傳統 民俗酒』, 曉日文化社, 1995.
- 박록담, 『名家銘酒』, 효일문화사, 1999.
- 朴炳采, 『高麗歌謠의 語釋研究』, 宣明文化社, 1973.
- 白光弘 저(鄭珉 역), 詩酒戰, 『岐峯集』, 亦樂, 2004.
- 백두현, 『주방문 정일당잡지 주해』, 글누리, 2013.
- 蕭放(샤오팡), 『중국인의 전통생활풍습』, 국립민속박물관, 2006.
- 안동 장씨 저, 김달웅 편, 『음식디미방』, 경북대학교 출판부, 2003.
- 梁柱東, 『麗謠箋注』, 乙酉文化社, 1947.
- 오재환, 「신과 인간 융합의 접점」, 『술의 사회학-음주공동체의 일상문화』, 한울아카데미, 1999.
- 邑心文 저, 임승권 역, 『중국 풍류를 마시다』, 차이나하우스, 2011.
- 李秉岐 외, 『農家月令歌·漢陽歌』, 民衆書館, 1974.
- 이성주, 『증보 고려시대의 가요』, 민속원, 1998.
- 李勝明, 「靑山別曲 研究」, 『고려시대의 언어와 문학』, 한국어문학회 편, 형설출판사, 1975.
- 李在銑, 『韓國文學 主題論』, 西江大學校出版部, 1989.
- 임기중, 『한국가사문학주해연구』 13, 아세아문화사, 2005.
- 임성철, 『일본 고전시가문학에 나타난 자연』, 보고사, 2002.
- 이상희, 『술-한국의 술 문화』 I, II, 선, 2009.
- 張志立·汪玢玲, 九九話重陽, 中國民俗大系研究叢書之一 『中國民俗文化大觀』(上), 吉林人民出版社, 1999,
- 鄭明鎬, 「韓國傳統 梨花酒 釀造技術에 대한 考察」, 『文化史學』 21, 韓國文化史學會, 2004, 1011~1034쪽.
- 정재서, 『不死의 신화와 사상』, 민음사, 2005.
- 진동혁, 『註釋 李世輔 時調集』, 정음사, 1985.
- 최철, 『고려 국어가요의 해석』,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6.
- 崔鶴根, 『증보 한국방언사전』, 명문당, 1990.

- 칼 오베 크나우스고르 저, 손화수 역, 『나의 투쟁 1』, 한길사, 2016.
- 한국고문서학회, 『의식주, 살아있는 조선의 풍경』, 역사비평사, 2006.
- 한국고전번역원(<http://www.itkc.or.kr/itkc/Index.jsp>)
- 허시명, 『허시명의 주당 천리』, 예담, 2007.
- 황병익, 「〈청산별곡〉 8연의 의미 재론」, 『民族文化論叢』 45, 嶺南大學 校 民族文化研究所, 2010, 31~67쪽.
- 황병익, 「動動 頌禱之詞 盖效1仙語 의미 고찰」, 『고전문학연구』 37, 한국고전문학회, 2010, 33~69쪽.

<Abstract>

## Study about the literary meaning of alcohol in Korean classical poetry

Hwang, Byeong-ik

In this paper, the meaning of alcohol in classical poetry was tried to study in depth and by thematic approaching. Based on the purposes and situations of alcohol, how the kinds of alcohol were different, how the potency and meaning of alcohol were recognized and what meaning alcohol implied in the works are searched.

The meaning of alcohol was presented well in the record of the ear of King Seongjong in “Goryeosa”, which said the bars, ‘Seongrye(成禮)’, ‘Nakbin(樂賓)’, ‘Yeonryeong(延齡)’, ‘Yeongaek(靈液)’, ‘Okjang(玉漿)’, ‘Heuibin(喜賓)’, etc., were built on the days of Gihae(己亥日), October, in winter. After looking at the potency and meaning of alcohol in classical poetry, themes of classical poetry were divided into sympathy and communication of God and human, praying for good fortune, being excited under the influence of drink, being in harmony with people, vanity of life, relieving anxiety, self-consolation, defeating devil, remedy, hoping for long life, imagination of transcendence, and realization of an immortal world. There were drinking which makes people attempt the unity and concord of their members offering alcohol to gods, enjoys the complacency and pleasure of this moment putting off concerning, comforts his or herself in frailty of human life, cures a disease, prays for longevity, and imitates the transcendence and composure of an immortal

world. According to the purpose of alcohol, the way to make alcohol and its kinds were different.

In this paper, however, if subjects of studies are extended to Chinese poetry or other classics, more drinks and more meaning will be figured out. Henceforward, Korean drinking custom should be considered with theme of works and inner side of speaker beyond the aspect of subject matter.

**Key words** : sympathy and communication of God and human, being excited under the influence of drink, vanity of life, defeating devil, remedy, hoping for long life, imagination of transcendence, realization of an immortal

투고일 : 2016년 1월 15일, 심사 : 1월 18일 ~ 2월 12일, 게재확정 : 2월 12일